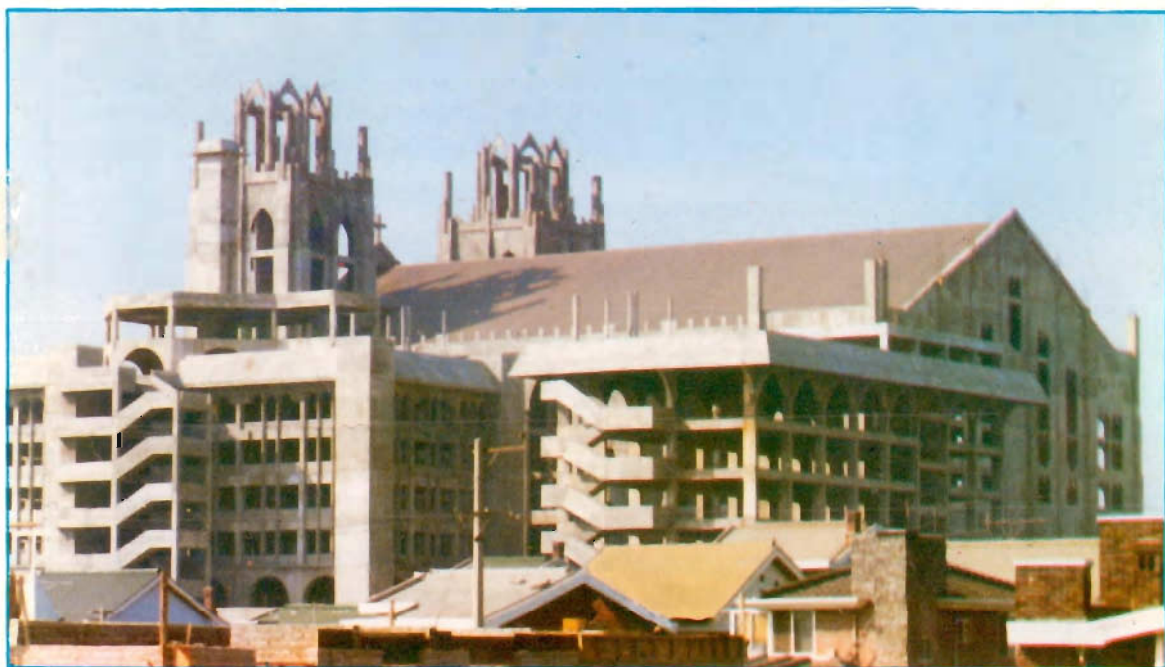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1 월호



새 해 의 전 망

1983년도 새해를 맞이하였다.

인간이 반성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려니와 앞을 내다보며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총현교회가 지금까지 힘써 감당하여 온 갖가지 사업들이 올해에는 더욱 활발해질 것을 전망한다. 천국 일꾼 양성, 북한 선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그리고 성전 건축에 있어서 큰 진보와 결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심정이다.

특별히 올해에 새성전에 입당할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 이번 9월에는 논현동 새성전에서 입당예배와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할 때는 무거운 마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지금까지 감당해온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적의 역사인 줄 믿는다. 비록 미완성의 건물이지만 우뚝 선 새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의 생생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받고서도 회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쓸것을 예비하고 계시지 아니한가? 이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허락하신 일이다. 이제에 끝까지 믿으며 힘쓰며 감당하는 일 뿐이다.

육의 고백처럼 모태에서 적신(赤身)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먹고 입고 쓰면서 이같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끔 은혜를 주시다니 황송하고 감사한 심정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주신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총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역사가 이렇게 감당되어야 할 의의가 또 있다. 금년 1983년도는 우리교회가 세워진지 만 30년이 되는 해로서 미숙한 청년의 티를 벗고 원숙한 장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30세까지 가정에서 받들어 섬기시며 준비하시다가 30세 경에 천국복음 사역의 공생애에 나서셨다는 사실과 의미를 연결해보면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새로운 각도로 느끼게 된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의 총현의 역사와 사명을 살펴보면서 정리하고 결산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단의 최대 교회라는 칭호로 부푼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적 외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부족함이 없이 감당했는가를 반성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 교회가 받은 바 은혜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이것을 후세에 전하고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야 할 것이라면 또한 이것을 잘 살펴보고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성실하게 살펴보고 정리·결산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새성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30년 준비기간이 그이후 공생애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또한 총현의 30년 역사가 이후의 새로운 역사 전개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신년도에는 국내외적인 대회들이 있을 예정이어서 총현의 과표 점검은 교회적인 요청일 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 교회의 시대적인 요청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제 선교 백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해도 주신 역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하며 기도하고 힘을 다해 충성하자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우리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4월30일 창간 제11권 제1호 통권106호

1983년 1월호 차례

□ 권 두 언/새해의 전망	주 간 · 2
□ 이달의 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김창민 · 4
□ 지상특감/심계명①	이종윤 · 6

□ 신년특집 /'83년도에 바란다

◇ 신령한 예배	김창근 · 11
◇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육성	최봉호 · 14
◇ '83년의 심방 전망	김원남 · 18
◇ 해외 선교지의 새해 전망	유국남 · 20
◇ 올해에는 새 성전에서	김기정 · 24
◇ 성경연구와 신앙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김차생 · 25
◇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조준상 · 29

□ 특별기고/

● 동기선교훈련에 적극 참여합시다	김창민 · 31
□ 그리스도인의 가치관⑩/인생관	
● 기독교의 인생관	안석렬 · 33
□ 성경강해④/이사야서	
●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김창민 · 37
□ 지상논단⑦/심방론	
● 효과적인 심방	조영길 · 39

□ 이달 의 시/동역자	장해연 · 30
□ 시 /주께 영광을	남성호 · 26
□ 신 간 안 내/성경의 세목별 연구	메레디스 · 36
□ 찬송가감상/구주예수 의지함이	김창근 · 42
□ 선교사통신/내가 만난 무슬림 여인	나니바부 · 43
□ 해외선교자료/중공선교의 최근 소식	편집실 · 44

선교사 · 선교지소식	45	교회소식	48
이달의 교우동정	47	편집후기	50
1월의 행사	50		

월간 총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1 1월호



표지설명/ 1983년 새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교회설립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로서 우리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그 새로운 용제를 떠나갈 원단의 물알에 서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온 교회 성도들의 열화와 같은 소망 속에 새성전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9월첫째주, 30주년기념예배를 새성전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표지는 2차공사가 진행중인 본당과 교육관 그리고 선교센터의 모습(당)과 새성전건축을 위하여 마음과 경성을 바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의 모습(하, 상양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살후 2 : 13—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서…」 (살후 2 : 16)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원합니다. 웃사람을 잘 섬기고 아랫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물질로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웃사람 앞에 칭찬을 듣고 아랫 사람 앞에 존경을 받으면서 구김살없이 넉넉한 일생을 사는 권위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 소원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복을 내가 소유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또 비록 내가 원하는 복을 다 가진다해도 그 복이 평안과 기쁨만을 주는것이 아니고 그 복에는 근심이 섞여있고 죄악의 때도 묻어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땅위에 아무리 좋은 복을 가진다해도 그 복이 나와 영원히 같이 있어 주지않고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 땅위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복은 죄악의 때가 묻지않은 거룩한 복이고, 그 복은 근심이 섞여있지 아니한 온전한 평안의 복이니, 그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고루 넘치도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본문에서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 : 13)

먼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혜가 사람에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에는 중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으나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슬픈 마음이 생기고 죄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립니다. 성령님은 새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중생의 생명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2.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살후 2 : 16)

첫째로 상대방의 사정을 다 안 다음에야 위로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생각을 못하는 것이 그늘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아 주십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사정을 해결할 실력이 있어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신은 내 사정을 해결할 실력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내 사정을 해결할 실력

을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다.

세째로 위로해 줄 사랑에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3.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살후 2:16)

땅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행복스러운 사람, 불행한 사람, 고상한 사람, 저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는가의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명백한 사람은 행복된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된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한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 소망을 두는데 돈이나 권세, 명예에 소망을 둥니다. 그러나 인간이 여러곳에 소망을 아무리 두어보아도 그 소망을 이루기는 힘들고 이론짓 갈다가도 꿈을 쉰 것처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주시는데,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땅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는 아니 믿는 사람도 세상은 말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소망이 확실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이 확실해졌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맞는 것으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으로 중생시켜 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만 하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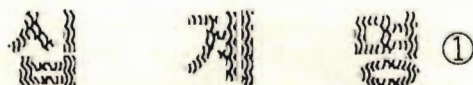
참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을 소망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우리의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령님의 감동에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따르면서 날마다 열매를 더 많이 맺어 하나님의 한없이신 은총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출20: 1 -17>



이 원고는 1982년 10월 10일 주일 1부 예배에서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서 언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에 걸쳐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겠읍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구원해내시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하던 그들이 구원 받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영육이 아울러 만신창이가 되어졌읍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쌍할만큼, -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기진맥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읽으실 때에 그 서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즉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지존자시며,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를 받으

이 종 윤 목사

(아세아연합신학원 · 교수)

신 분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는 절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말하노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권위있는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하신 말씀이요,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요,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정부가 발표한 말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하다는 말씀은 이 말씀에는 변화가 없고 그 말씀은 동서고금 어느 곳에서나 다 절대적인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는 영원히 지존자시요 그는 참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김씨의 하나님, 박 집사의 하나님, 최 장로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총현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의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적이스라엘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아내가 깨워서 아내의 끌림에 의하여 억지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대체로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용서하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다툼을 하고 다투는데 그 다음에 남편된 사람이 혹은 아내된 사람이 서로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많이 들었던 말 중의 하나는 결혼한 다음에 부부 싸움이 시작되거든 첫번 싸움은 꼭 이겨라 이기지 않고 남편에게 굴복을 할 때에는 평생 그렇게 될터이니 남편에게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또 그대로 들은 이 처녀는 결혼한 다음에 첫번 싸움에서 남편에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말을 안 하기를 이틀 사흘 안 합니다. 남편은 또 옆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남편은 그것이 무슨 큰 자존심이라고 아내의 그 뽀루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을 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리시지를 않았습니다. 큰 사람이 작은 분에게 먼저 야락을 베푸는 법입니다. 오늘 아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거든 아내가 큰 줄 알고 남편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남편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거든 그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요 참으로 넓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본자세—하나님 경외하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계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최초의 원리는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옵니다. 일상 생활중에 순종

“이 여자는 내가 자기 남편인데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기 아내를 홍보는 남편이 있습니다 마는 왜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존경할 때 순종이 생깁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시키는대로 공부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뜨겁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백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 받드는 신자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수를 헤아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덤비며 하나님 그 이름을 남용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레위기 26장 9절에 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은 과거에서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리고 오고오는 세대에까지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다.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개인에게도 그리고 민족에게도 주시마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은 과거에서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까지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경외심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만일 백에 하나라도—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한국 교회가 만 명이 모인다 5만 명이 모인다 10만 명이 모인다고 그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엄연한 말씀과 이 기대와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막사람하는, 어떤 면에서 가슴아픈 역사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가 호세아서에 잘 나타납니다. 사랑하느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고 창녀의 소굴로 도망쳐 버리는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는 보리를 싸들고 찾아가서 팔려간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량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된 자가 아내를 향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들을 맞아들이지 말라고 부탁하는 신랑의 심정과 같은 말씀이 이 제 1 제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하거나 요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나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떤 신이냐가 문제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다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역사적으로 보면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신들을 인간들은 섬겨왔습니다.

이방신—다신교

첫째로는 다신교(polytheism)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 월신, 목신, 수신, 물의 신, 바람의 신, 강의 신, 산의 신 하면서 인생들은 이 세상의 허다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을 섬기라거나 심지어는 무신론자를 향하여 신을 섬기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의 신은 자기 자신이 곧 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단일신교

둘째로는 소위 단일신교(henotheism)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택해서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가 자기들의 수호신을 만들어놓고 그 수호신이 자기 민족을, 자기 가정을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때도 있었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택한 것을 우리는 국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타국과 전쟁도 불사하고 자기들의 신은 그들 영토 내에서는 최고의 신이지만 다른 나라 땅에 가서는 이 신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저들 대부분의 형편입니다.

사사기 11장24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중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하면 국가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들 사이의 전쟁이었으며 국가의 영토가 곧 신의 영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못지 못할 일들이 생겨집니다. 가령 한 나라의 왕이나 왕자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다른 나라의 공주가 그 나라에 시집을 왔을 때에 그 공주가 섬기던 그 수호신을 모시고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섬기던 신과 공주나 왕비가 가져온

신이 둘이 될터이니 그 때는 백성들은 두 신을 섬겨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데 가령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도 많은 그의 처첩들이 이방신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렸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도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왕국에 이방신이 들어오게 하였다는 사실을 열왕기상 11장과 1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 단일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수호신이요 한 가정의 신을 섬기는 것이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제한된 힘을 가진 신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신—하나님

세째로,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일신은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신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며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역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미국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방글라데쉬 사람도 오늘 저 공산권에 살고있는 사람도 같이 섬길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의 영이 성경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다른 번역을 보면 beside me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고로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올시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다 잘 아는 얘기 같고 쉬운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움직임이, 여러분 개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야웨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배신 행위 경고

구약 시대에는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도 역시「주」라는 말입니다. 바알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바알이 무엇을 주장한다고 보았습니까? 바알은 생명의 신비를 주장하는 신으로 본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신인 바알은 콩을 나게 하고 밭에서 포도가 열리게 했고 올리브가 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들은 바알을 생명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즉 바알은 모든 생물의 성장과 생명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곡식도 내가 주었고 포도주도 내가 주었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바알에게 섬기기 위하여 가지고 가는 금과 은도 내가 주었거늘 너희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부터 온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귀한 자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귀한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나오며, 여러분이 가진 귀한 직장이 있으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중 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내게 한 가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준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이 내게 준 것인줄 알고 어떤 다른 신이 내게 이렇게 하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게 감사하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은 또 한 가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은 위대한 다른 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쳐다보니 바알의 권능을 하나의 성적 욕망의 힘에서 부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후부터 지들은 바알 신전에 여자들을 집어넣고 여자들을 거룩한 제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애기를 낳을 힘은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바알 신전 안에 여자들을 제물로 집어 넣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니까? 예배보러 들어오는 사람들과 창녀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14절 이하에서 이 창녀를 통한 희생 제물을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 창녀들과 교합을 하는 사람들

마다 바알신의 생명력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을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엄청난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저들의 위기를 지적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친 성적 문란과 그리고 술취함과 먹을 것을 탐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바알신을 찬양하는 예배법이 되었으니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을 크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 일 계명은 바로 이같은 인간들의 물지각한 배신 행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를 향하여 빨리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고 외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분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며, 자기들의 구원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프셨을 것입니다. 남편을 배신한 아내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과도 같습니다.

제 일 계명의 교훈은 예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혼합 종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마니즘이나 무당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치 아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속 신앙만이 아니라 불교 신앙까지도 여기에 혼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납 아니 하십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많은 신학의 무서운 동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혹은 마호멧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 집안에 여러 종교를 혼합시켜놓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겼지 다른 것 섬긴적 없음

니다"라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하나님만 섬겼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서는 세상을 섬긴 사람들이 우리를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 어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의 신을 찾아 다닙니다.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줄 알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능으로 되어질 줄 아는 과학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과학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며 사람들은 과학을 향하여 인간의 운명을 걸어놓고 과학을 쳐다보며 과학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금송아지를 배어놓고 오늘도 금덩어리가 힘이 있고 오늘도 돈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발입니다.

오늘날 박카스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카스는 회합의 술의 신입니다. 오늘도 향락의 신을 섬기는 사람 말합니다. 「켓세라 세라」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향락을 취하고 이를 만끽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향락을 따라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비너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좇는 사람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의복에 자기의 육신의 이름다움에 도취한 사람들,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불탄서의 이설론자 가운데 불테어라는 하는 사람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발명해 내야 하겠다고 외치고 다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향하여 오늘도 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기지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모습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신들을 찾아다니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전력 섬겨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좌에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신 령 한 예 배



김 창 근 목사

〔예배위원장 2지구실빙〕

범죄타락한 인간들이 기록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 이었고, 신약에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복 중 가장 큰 복임을 먼저 기억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참 예배의 정신을 구약의 제사에서 배우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우리에게 두가지 계시를 가르치려고 하셨다.

1) 제사를 통해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준다. 즉 대속의 제물로 피흘려주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2) 제사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에 구약의 "5대제사"가 있다. 그중 네가지는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로 곧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 즉 식물을 드리는 제사로서 소제라고 한다. 이 가운데 신약의 예배의 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비교하면서 참 예배의 정신을 찾아 보고자 한다.

1. 번제와 예배 (레 1:1-9)

번제물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그 제물들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① 레위기 1:3~ 수소(고난과 인내의 그리스도 상징)

② 레위기 1:10~ 수양과 수염소(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순종의 그리스도 모형)

③ 레위기 1:14~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온

유와 겸손을 표시하는 모형)

이와같이 옛날 성도들은 제물없이 성전에 나갈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제물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영원한 번제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물 없이도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1) 번제 드리는 방법

① 안수 (레 1:4)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 할찌니” 제사장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모든 죄를 고백한다. 그리고 제물을 불태우는데 이때 죄도 같이 도말시켜 주신다. 안수란, 죄의 전가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담당시키는 예식이다.

② 각을 뜨고 찌개어 화제로 드린다 (레 1:8~9) 남김이 없이 전부 (네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갱이) 찌개어 깨끗히 씻어서 제단에 바쳐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이다. 곧, 몸 전체, 마음과 뜻과 정성, 생각, 생명을 모두 바침을 의미한다.

2) 제물의 종류

제물의 종류는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소, 염소, 비둘기) 이는 소나 염소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 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제물의 많고 적음, 또는 가격의 차가 있을지라도 드리는 자가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즉 제물의 가치는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을 것이요, 그 제물 자체의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화목제 (레 3:1~17)

화목제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고 교통을 말한다. 번제가 헌신을 의미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진리를 의미한다.

1) 제물의 종류

소 (인내와 충성)

양 (순종과 겸손)

염소 (배척과 멸시, 버림당함을 상징)

번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만 했는데, 화목제에 있어서는 수컷과 암컷의 구별이 없다. (레 1:3, 3:1 비교) 흠없는 수컷의 제물이 장차 나타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화목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제사 방법

레 3:2, 8, 13절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제단사면에 뿌릴 것이며”라고 했다.

피를 뿌리는 제물은 염소, 소, 양 이지만 이 제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이다. 이와같이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곧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생각할 수 없다(롬 5:1~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화평을 누린다는 뜻이다. 이 피의 구속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① 안수 (레 3:2)

제사장이 안수할 때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물에 안수한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그 피를 뿌려 사하고 그 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② 기름을 태운다 (레 3:3)

번제에 있어서는 제물을 쪼갬 후 전부 고스란히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화목제에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즉 레위기 3장 3절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찌니, 곧,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겨장은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라고 했다. 즉 기름만 태운다는 뜻이다. 기름은 생명이니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다(레 3:16,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단에 드렸다가 거두어 일부는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밖의 온 가정 식구와 이웃까지 즐거워 하며 먹었던 것이다. (신 12:2~19)

3)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

화목제를 드릴 때 3가지 예물드리는 순서가 있다.

- ① 감사제(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
- ② 서원제(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일)
- ③ 낙헌제(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일, 레 7:15~16)

옛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증거물로 서원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의 제물을 드리기도 했다. 오늘날의 예배에도 이러한 정신을 언제나 살려야 한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참 예배의 정신은 첫째, 몸과 마음을 바치는 번제의 정신과 둘째, 성도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화목제의 정신과 셋째, 죄를 회개하는 요소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예배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별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서 말씀을 통해 오심과 (성경봉독, 설교, 축도)
 2. 예배자의 응답(기도, 찬송, 헌금 등)
-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회중의 응답

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나오는 아멘과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응답이 따라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의 성전에서의 외식적인 타락때문에 크게 진노하신 일이 있다(비둘기 파는자, 돈바꾸는 자들의 상을 없으심).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은 너무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 참 예배, 곧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몸, 마음, 물질,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를 믿음으로 드리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충현의 모든 예배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다"(소요리문답 제1문)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3~24)고 하셨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도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신학교육의 궁극적 목적도

바른 예배자를 양성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 신년특집

1983년도 교육위원회 교육 운영 계획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육성



최 봉 호 목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1. 서언

1983년도는 충현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해이다. 협착한 시설 환경에서 미비되었던 교육활동이 기대하던 새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교육내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정립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충현의 교육을 바라보는 국내외 교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2. 교육위원회 주제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충현교육의 총주제 아래 금년도에는 골로새서 1장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육성”이란 주제를 놓고 더욱 완전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키우는 일에 진력하고자 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은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8~29)

3. 교육위원회 목표

금년도 교육위원회의 4가지 중점적인 목표는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확립, 교과과정 정립, 교사의 자질향상, 새 성전 이전 준비 및 정리이다.

1)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확립

예배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 기울여 경배하는 가장 경건된 의식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시

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일일이 찾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더 나아가 예배의 원리와 본질까지도 바로 가르치고 더 나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고 한것 처럼 영적으로만 아니라 몸도 온전히 헌신하는 참 예배를 드리도록 훈련하고자 한다.

각 부서에 알맞으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진 예배 순서로 배열하고 주교각부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순서를 맡은 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실시하고자 한다.

어느 교회든지 예배 모범정도에 따라 그 교회 주일학교의 교육수준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2) 교과과정 정립

교과과정을 정립하려면 먼저 교육이념과 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의 교육내용은 제자리걸음 상태에서 우선적인 문제보다 미봉책적인 교육방법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므로 교육의 필요성이나 지속성도 없이 교역자나 교사가 자질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교육이었음을 절감한다. 이러한 마당에서 교육이념과 목표설정, 교과과정 정립을 단시일내에 성취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시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과제이다. 의을

현재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의 공과내용도 재평가하여 지·정·의의 종합적인 발전적 교육이 되도록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고 또한 본교회의 직장 청소년부나 대학부, 청년부, 영아부, 새가정부, 소망부, 선교부 등의 부서는 교회 전체적인 교육이념과 목적 아래 우선적으로 각기 그 부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교과과정을 교육과정 구성원리에 따라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 목적아래 부서별로 단계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수많은 작은 목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커다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적 설정은 신구약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도록 해야지 인간적인 흥미를 돌기어주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도록 해야겠다.

3) 교사의 자질향상

교사의 실력이나 영적 인격적 성장없이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신앙상태와 또 기본교리의 이해정도, 개인 경건생활, 교수능력 등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평가하여 진단하고 장기적인 자질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훈련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여기에 앞서 지도교역자나 부장단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 가노라." (빌. 3:12)고 한 것같이 충현의 교사들은 다된 줄로 생각지 말고 자신이 먼저 성숙하도록 계속적인 훈련을 받으며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새성전 이전준비 및 정리

새 교육관을 각 부서의 기관들이 적절히 사용토록 연구 조정해야 하고 각 장소가 부서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환경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새성전 지역의 문화권과 새성전 주위에 있는 타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실태를 답사하여 새 환경에 쉽게 적응토록 해야겠다.

그리고 새성전으로 이전하기 전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새성전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며, 또 이전했을 경우 학생들의 이동상태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새성전 이전 후에 각 부서의 부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새성전에서의 교육방법도 주어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역점 사업

1) 교육 연구 위원회의 활성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기관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 설정과 더불어 위에 열거한 금년도 교육위원회 중요 목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현재 우리교회의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와

교육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장기간이 걸릴지라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 교재 개발 준비와 각 부서별 교사 훈련 프로그램, 교육위원회 회칙 및 주교 교칙 수정 초안 마련등 교육 연구위원회의 활동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외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과 주제를 놓고 자주 토의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2) 학부모 특별 교육

일반학교 교육내용과 시간이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교육은 주일 하루, 그 중에서도 극히 짧은 시간에 실시되고 있다.

예배시간과 분반공부 및 교회활동등 교회에서 학습하는 시간보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으므로, 주일학교 교사가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한다해도 가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교회에서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부모가 기독교신앙인이라면 가정에서 정상적인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은 당연하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을 통하여 말씀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금년에는 가정을 통한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 특별 훈련을 5월(가정의 달)과 10월 두 차례달에 걸쳐 실시하고자 한다.

3) 교육위원 자질 향상

교육위원의 교육에 대한 자질 향상과 개인 성장을 위한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4) 각 부 지도 교역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

각 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 교역자가 성장해야 한다. 지도 교역자의 성장을 위해서 지도자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훈련을 가지고자 한다.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부 교역자 기도회를 한 학기에 1회씩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연속적이고 통일성있는 교육

지도를 위해 자체내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가지며, 외부 전문가를 청빙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또한 각기 부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주제에 따라 연구한 것을 보고토록 하여 교육위원회 기관지에 기고하고자 한다.

5) 부감 처장 자질향상

부감 처장의 지도력 개발 및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6) 교사 수급 확대 방안 모색

지도가 양성부를 수료한 정교사가 각 부서에 수급되어도 현재 교사의 기준수에 미달되는 실정이므로, 새성전 이전 후에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이동에 대처하도록 하려면 교사대상자를 많이 확보하여 훈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교회 주일학교에서 3년이상 정기과정을 마친 대학부 1학년 이상 학생에게는 특별단기교사훈련을 시켜 저급학년에서 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교회 제직 중에서도 자질있는 인물을 계속 발굴하여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하겠다.

금년도에 몇 분의 장로님들이 평교사로 자원하여 봉사하게 됨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7) 특별 전도집회 실시

새성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각 부 주일학교의 부흥책의 일환으로 우선 중 고등부 및 어린이 전도집회를 9월말경 실시하고자 한다.

5.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금년도에는 교육 내용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제 목적과 내용이 바로 설정되지 못한 가운데 실시되던 일시적인 행사중심의 교육활동은 점차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 1983학년도 총주제 :

“천국일꾼을 키우자”

- 목표 : 1) 예배의 바른 자세 확립
2) 교사의 자질 향상
3) 교과과정 정립
4) 새성전 이전준비

표어 :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육성”
(골 1:28)

1. 영아부

- 목표 :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한다.
표어 :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자” (골 3:23)

2. 유치부

- 목표 : 성령의 열매맺는 유치부
표어 : “천국일꾼을 키우자”
실천사항 : 1) 뜨겁게 사랑
2) 열심히 전도
3) 정성껏 찬성

3. 어린이 새신자부

- 목표 : 1) 매일 성경 읽는 어린이가 되자
2) 매일 기도 하는 어린이가 되자
3) 매일 전도 하는 어린이가 되자
4) 서로 사랑 하는 어린이가 되자
표어 :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4. 유년부

- 목표 : 1)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자
2) 영적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자라자
3) 생활을 통해 은혜를 찬송하자
표어 : “구원의 의미를 찬미하자” (엡 1:4-14)

5. 초등부

- 목표 :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
주제성구 : 히브리서 12:2
주제찬송 : 새 110장

6. 중등부

- 목표 : 1) 바른 예배
2) 열심 기도
3) 생활 전도
표어 :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하)

7. 고등부

- 목표 : 1)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2)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자
표어 :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 28:15)

8. 대학부

- 목표 : 1)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2)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3)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그리스도인
4)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표어 :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자”

9. 청년부

- 목표 : 1)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2)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생활
표어 : “보고 배운 바를 행하자” (빌 4:9)

10. 장새부

- 목표 :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케하는 말씀 교육”
표어 :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마 16:16)

11. 세례부

- 목표 : 세례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로하는 성도로 육성한다
표어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자”

12. 장년부

- 목표 : 말씀을 생활화 한다
표어 : “여호와와의 교훈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자”

13. 소망부

- 목표 :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함
표어 :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시 71:14)
주제찬송 : 새 89장

14. 직장청소년부

- 목표 : 1) 예배 중심
2) 생활 교육
표어 : “확실히 배우고 힘써 일하며 끝까지 전하자”

15. 선교부

- 목표 : 1) 선교교육강화
2) 선교사(평신도 포함)의 양성
3) 선교의식 고취및 참여지도
표어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자”

16. 새가정부

- 목표 : 1)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정
2)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3) 주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가정
4)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봉사하는 가정
표어 :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정”

(이출국 집사 제공)

'83년도 심방 전망

“1983년도는 1980년대 세계적인 대부흥의
충현을 위한 모범적이고 활기찬 심방위원회
운영의 기초를 놓는 것 같은 해가 되었으면”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1980년대의 우리 충현은 그야말로 세계를 향한 충현으로 세워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입증은 대규모 「새성전 건축 완성」 하나로도 입증됩니다.

새성전에서의 집회가 시작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대부흥을 기하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드러내, 오늘날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약적인 부흥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연합세력에는 큰 힘이 있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980년대의 「세계의 충현」을 이룩하는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1983년도 새성전 입당의 해에 우리 충현교회에서 제일 요긴한 부서인 심방위원회의 여러 활동 중에 특히 「구역운영」은 그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1983년도 본심방위원회는 이「구역운영」의 활력소의 역할이 되는 심방위원회 구성을 목회경험이 풍부하고 기도를 꾸준히하는 성령 충만의 영력있는 교육진과 연구력과 이지력을 갖춘 열심있는 장로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활하고 신속하고 질서있고 정확한 동적인 구역운영을 위하여 기동력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매 지구당 자동차 한대씩을 구비했고 구역조직에 있어 종전의 조직을 일소, 협동구역장을 가장 가까운 구역에 살고 계시는 장로님들로 세웠습니다. 협동구역장님들은 힘써 자기 협동구역내를 심방하고 구역 활동을 지도 관장하여 활력있는 구역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역장은 활동력있는 구역장을 세웠고 한사람의 구역장이 관할하는 세대는 5세대로 정하였습니다. 이 구역장들은 구역을 중심으로 예배, 성경공부, 기도, 전도, 친목활동 등으로 활기찬 확장운동을 이룩할 것입니다. 특히 구역장은 신속히 구역 상황을 협동구역장이나 지구담당 교역자에게 보고 또는 협의, 연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녀 교역자들의 사무를 분담한 일입니다.

1. 사무분담 하면 능률적인 심방을 할 수 있고
2. 남녀 교역자들이 교재 작성과 심방위원회 사무를 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3. 상주 심방이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구역담당 교역자와 요원(일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먼저 심방부를 담당하는 여교역자들의 교육을 위해 월1, 2차 이 두란 진도사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남교역자들은 년1차 농이촌교회 집회를 약4일간씩 인도하여 드리는 일이며 특별히 남녀 심방부 전교역자가 년1차 국내 대교회에 2박3일이나, 3박4일간 순방하시는 일이 있겠습니다.

구역요원 교육을 위해서는 단기수련회시에 교육, 12월16일, 17일 2일간, 연5차 지구별 교육훈련을 하며, 이 교육을 위해서는 「구역요원 교육훈련 지침서」를 내어 거기에 준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장 공부를 위해서는 매주 2일에 걸쳐 예비공부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성경공부에 전 일꾼들이 참여토록 권장하는 일입니다. 확장원(구역원)은 가까운 거리내에 있는 5세대를 묶어 한 구역을 형성하여 모든 구역원이 신속히 쉽게 아무 어려운 조건없이 될 수 있게 동단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83년은 1980년대에 세계를 향한 충현건립에 전초적인, 기초작업의 해가 될 것입니다. 충현의 모든 구역요원들이여, 힘써 기도하며 힘써 좋은 일꾼으로 성장합시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충현건립에 밑거름이 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부흥 민족위에 축복 가져올 것이며 역군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외 선교지의 새해 전망

지난 해의 경험과 지식을 되살려
여러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유 국 남 목사
(주일학교 선교부 지도)

1983년도는 충현교회 창립 제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본 해외복음선교회는 그 꼭 절반인 창립 제15주년을 맞이한다. 선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우리가 앞장 서 개척해 나가야 할 주님의 명령인줄 알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그동안 12개국에 교역자 선교사 15명, 평신도 선교사 2명 합 1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

그 가운데 일신상의 사정으로 두분이 사면하고 두분은 이미 소천되셨으며 한분은 귀국하여 선교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이제는 열두분이 선교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8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여태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되살려 여러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특색있는 사업과 전망을 내다보면서 해외선교지의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금년 선교전망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인도네시아 선교의 전망

지난 일년동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10여년의 선교활동에 있어 크나큰 변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성과를 얻었었다. 수많은 타국의 선교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주권을 받고 신교 선교사의 대표가 되어 활동하시느라고 바쁘신데도 그동안 다음 단계의 선교를 위해 준비해온 노고의 결과로 인도네시아정부와 현지 협력선교단체의 지원을 받고 의료선교사의 초청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고 이제 적격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현지인 개척 전도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다양하고 확대된 선교활동을 위해서 연초에는 더 큰 대지에서 새 선교 센터의 기공식을 당회장님을 모시고 거행할 예정이다. 대략 1월말일경이 될 것이다. 정치는 비교적 안정되었다고하나 회교국가 특유의 적대적인 분위기속에서의 선교활동은 영주권 받은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못된다고 한다. 특히 장기간의 휴식없는 노고로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이 매우 염려되는데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와 후원이 요청되며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사역을 감당할수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새로운 선교사 파송의 길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큰 과제가 되겠다. 선교활동 자체는 현재의 수준에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며 현지개척교회의 자립에도 큰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되며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선교활동 및 교육훈련 보조자로서의 지원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2. 유럽 선교지의 전망

둘째로 유럽 선교지의 전망을 보면 세교회를 원세 없이 다니시면서 수고하시던 육호기 선교사님이 교회의 발전과 사역의 확대로 단독 선교활동에 한계에 다가가고 있는 형편이어서 신속히 동역자를 파송해야 할 것 같다. 유럽선교라는 커다란 테두리를 놓고 볼때 동역자를 파송하는 것은 매우 소망되는 사실이며 수양관을 구입하고 선교훈련센터 및 중계지의 역할을 하게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 특히 중요하다. 현지 서독인 및 미군 가족들의 선교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과 배포 특히 한독찬송가의 발간은 매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년중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다. 벨기에에 나가 계시는 김성완 선교사님은 선교여건이 예상외로 어려워 많은 기도의 지원과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번에 선교차량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유럽 선교의 새로운 방면이 개척되고 있는 셈이다. 특별히 어학훈련 및 구역성경공부에 주력하고 계시는바 다음 단계의 선교준비와 한인교회의 부흥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육호기 선교사님과의 협력도 크게 기대되며 유럽 선교의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강구될것이다.

3. 남미 선교의 전망

목회여건의 어려움에다 포클랜드 전쟁까지 터져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던 아르헨티나의 백성룡 선교사님은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가족경제와 자녀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중 한인학교의 이사장직도 내어놓고 심리적 부

담을 더시고 목회환경도 호전되는 가운데 원주민 선교를 담당할 선교후보자 전도사를 모시고 본격적인 현지선교를 간접적으로나마 실시하게 되었다.

본부에서도 자립단계에 있다하여도 여건이 그런만큼 생활비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드리고 활동비도 보조하도록 예산지원을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남미 일원에 걸쳐 원주민 사회에 큰 전염병이 번져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고는 하나 본격적인 현지인 및 원주민 선교에 진일보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는 한해가 되리라고 여겨진다.

또한 파라과이의 김재창 선교사님도 같은 여건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므로 본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현지인 선교를 시작하기위한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가운데 특히 마가족 또바족을 위해 선교하고있는 고광철 평신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마침 귀국중에 계시므로 1월하순경에 모시고 현지소식과 함께 보고회를 갖기로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내륙의 원주민과 이웃 케루에까지 들어가 선교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이다. 칠레의 유재일 선교사님은 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현지인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위한 여건을 갖춰가며 현지인 교역자를 후원하여 교회개척을 강화하는 한편 교회내의 원주민 교역자 및 교사를 채용하여 주일학교를 설치 운영함으로 직접선교에도 나서고 있다. 세분 선교사님은 남미 선교 연합회를 구성하여 협력체제를 이미 갖추셨는데 금년은 재법 본격적인 전환기에 들어서서 실질적인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보인다.

간접적인 후원을 통한 선교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리라고 본다. 알헨티나에서는 동역 부교역자도 구하고 계시는데 이와 병행하여 몇개 지역에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할것 같다. 기반조성 단계를 거쳐 이제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4. 애굽 선교지 전망

먼저 지난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귀한 축복을 받은 한해였다. 외국인에게 정해진 정원을 늘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인도네시아 시도마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통해 카이로 한인교회가 외국인 교회로 인정받고 이준교 선교사님은 담임 목회자로서 노동 및 거주허가증이 나오고 불가능하게 보이던 석신군의 중학 진학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 수단지역의 교회와 연결을 맺고 금년에는 몇분 애굽 목사님과 함께 강사로 초청되어 가지게 되었다.

애굽 복음주의 교회들과의 유대도 강화되어 하기 교역자 수련회 강사로 당회장님을 위시하여 이종윤·신성종 두분 박사님이 수고하셨고 애굽성서공회 사무총장인 이스타와누스 목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본교회의 영접과 안내를 받고 우의를 돈독히 하였던 한해였었다.

넝마주이 촌과 사회사업의 여러방면에서 현지인과의 직접선교의 길을 열고 금년중으로 아메리칸대학의 아랍어 과정을 마치면 다소나마 언어 문제가 해결되어 애굽 농어촌 교회와의 접촉활동이 좀 더 적

극적으로 개척되어 나갈 것이다.

애굽선교의 기반이 다지는 한편으로는 수단과 아프리카 내륙국가 및 인근 아랍국에의 선교의 정보를 수집하고 선교가능성도 타진하여 애굽선교의 초기에 기대하였던 중동 및 아프리카 선교비전에 서광을 기대해 볼수있는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겠다.

5. 인도선교의 전망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로 처음부터 개척선교에 수고하여온 엘리야·갯간 선교사님은 그동안 프리그이 복음서 번역을 일부 완료하여 티베게 프리그사람들에게 성경번역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본인의 계획이상으로 잠무-카쉬밀 지역의 회교도 선교에 힘쓰고 있는 카쉬밀 복음선교동맹의 총무로서 활

동하시게 되고 전인도 복음화를 위한 선교단체들과도 유대관계를 갖고 교류하는등 크게 활동하는 가운데 국제 선명회에서 주최하는 카쉬밀 교역자회의의 회장이 되어 이를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인 선교활동으로는 파르치크와 파르카치크 두 지역에 전도소를 개척하여 하나는 섬유직물 짜는 수공업 공장으로 경제적인 유익을 결하여 해결하는 윌리암 캐리식 선교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한곳은 청소년센터로서 도서실과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미 부분적으로 실천단계에 들어가 두분 영어교사중 한분으로서 스네할라타 사모님이 참여하여 수고하고 계신다.

결하여 본부에서 지원한 선교비를 바탕으로 전도소를 중심으로 활동할 이동 진료차를 구입 운영할 계획인데 결핵이 많고 혈병고 가난한 가운데 한냉 고지대에서 각종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회교를 믿고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영적인 복음과 함께 좋은 사랑의 선물이 될 것이다.

지난 기간동안의 기반을 가지고 차차로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선교가 급년을 계기로 시작될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6. 일본지역의 전망

평신도 선교사 유병세집사님이 수고하시는 일본지역의 전망은 여러가지 선교여건의 제약상 팔복할만한 특별한 성과의 기대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그동안 쌓은 헌신이 작년에 에리모 진료소로 확장되어 나타날듯, 이윤호 권사님의 부인성경반을 통한 선교의 열매와 함께 금년에도 또다른 어떤 형태로나마 진전이 나타나고 선교일선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마기 선교사님등 외국인 선교사님들과의 유대관계도 확장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믿는다.

특별히 본국에 남아있는 자녀의 교육과 장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의 폭을 넓히는 금년 한해가 되고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과 선교사역을 위한 성령충만하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7. 호주지역의 전망

호주지역은 작년말로 김태현 선교사님이 자립하여 지원을 끝냈지만 여태까지의 상호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선교의 길은 여러모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한해가 되겠다.

멜보른 지역에 국한되었던 현재의 선교지역이 시드니 지역 및 현지인과 원주민들에게도 확장되도록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연구하는 해로서 기대해 봐야겠다. 그가운데서도 선교사님 사모님의 건강회복과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8. 홍콩지역의 선교전망

마지막으로 홍콩선교지역을 보면 고흥종만 선교사님이 소천되시고 홍콩한인교회를 타고난 교역자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관계가 단절상태에 있고 후원하던 이만열, 엄영택 선교사님과의 교신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어서 현지를 통한 중공선교 및 북한선교의 기반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 있다.

금년중으로 과거에 유대를 맺었던 선교단체들을 초청내지 방문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중공 선교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올린 결실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전진을 이루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공선교를 담당할 선교후보자의 육성도 긴급한 과제중 하나가 될것인데 현재 주교 선교부에서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웅 집사님의 기여와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올해에는 새성전에서



김 기 정 장로

〈건축위원회위원장〉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운데 성전건축의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끊임없는 관심으로 도와준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설립 30주년을 맞는 금년 9월 첫 주일에는 새성전에서 입당예배 드릴 것을 목표로 모든 공사에 임하고 있는 공사장의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금년에는 10여년이 훨씬 넘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한 새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제1차공사인 골조와 지붕공사를 예정대로 마쳤고 이젠 금년 7월까지 선교센터와 교육관의 내부공사를 마무리 짓고 또한 주차장을 겸한 지하실도 80%의 공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예배드릴 본당 1층의 예배실도 예배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의 공정을 마칠 계획이며 운동장과 진입로의 도로, 부대시설등도 정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8 월에는 이사준비를 하고 9월 첫 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까지의 어려움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한 앞으로로도 많은 어려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믿음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남은 여러가지 일들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에 대한 비난들을 하지만 우리는 큰 교회당에 맞는 해야 될 큰 일들이 있음을 각자가 확인하시매 더욱 열심히 성전건축을 위해 노력하여 과연 이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미 시작한 일을 잘 진행하매 남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헌신과 노력들을 생각하며 금년에도 더욱 더 깊은 열심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 잊혀지지 않는 귀한 한 해로 우리 모두에게 추억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각 개인과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년 특집

충현성경연구원 소개

성경 연구와 신앙 훈련 통한 교회 성장



김 차 생 장로

(성경연구원 원장)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며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교회가 이같은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평신도를 중심한 성경공부운동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먼 장래를 위해서나, 양적인 급성장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면에서나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전교인을 통한 성경공부를 통해 수년내에 급성장한 교회가 서울에만도 적지 않다. 이것은 또한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기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 교인을 교육의 대상으로 폭을 높임과 동시에 소그룹화 하면서 말씀과 생활과의 간격을 가능한 좁히려는 시도다.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인격화는 누차 강조되어온 바이거니와 이것이 또한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며 성장으로 이끄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충현성경연구원에서도 『성경연구와 신앙훈련을 통한 교회성장』을 목적하고 모든 활동을 이에 집약하고 있다.

이제 1983년 사업계획을 중심한 충현성경연구원을 좀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요와 조직

- 목적 / 성경연구와 신앙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 목표 / 1. 교역자의 질적향상
2. 평신도의 질적향상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
- 표어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자.
- 주제성구 / 엡 4 : 13
- 주제찬송 / 새 219 장
- 조직 / 원장 목사 김창인, 원감 장로 김차생, 지도전도사 정은표, 부지도 전도사 김경성, 서무 최은미

· 이사회/이사장 목사 김창인, 이사 장로 김차생 ·
김기정 · 이응선 · 김영개 · 정석태 · 오태희 ·
윤명식 · 최성림, 권사 이옥녀 · 김상순

주요사업계획

1. 비정규사업(역점방향)

(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문제

각 계층에 따른 성경공부반들에 대한 교육목표를 구체화 하고 성문화 하며, 교육이 지식전달에 머물지 않고 생활과 인격의 변화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는 총현교회 평신도 성경공부와 신앙훈련을 위한 총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서는 성경연구원 단독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당회산하 각 위원회 특히 교육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강사문제

교육과 훈련의 참된 성과는 강사에 달려다고 보아 강사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되, 가급적 본 교회 교역자들로 하여금 한 과목씩 담당하여 연구하며 가르치도록하므로 평신도교육과 아울러 교역자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내용은 교회성장을 위해서 과감히 대외강사를 청빙하도록 할 계획이다.

(3) 교재문제

현재보다 효과적인 성경공부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가 성경공부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연구하여 발행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교회나 또는 여러 성경공부 그룹이 사용하는 각종 성경공부 교재를 수집하여 비교 검토하여 앞으로 정기적인 교재발행준비를 하며 아울러 본 교회 교역자들에게 위촉하여 집필토록 할 계획

□ 시

주께 영광을!

남 성 호 목사

(전도위원회 · 내지분과)

외롭다 말을 할까 어찌 말을 해
가슴만 애타하며 한숨만 나네
서글픈 마음 달랠길 없어 몸부림 쳐 봐도
누구가 이 마음을 위로해 줄까...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 하도 그리워
목매어 불러봐도 응답이 없네
불현듯 들려오는 새미한 음성
포근히 감싸안은 뜨거운 사랑
샘솟듯이 솟아나는 뜨거운 눈물
흐르고 또 흘러 강을 이루었네

4천척 바다같은 은혜의 생활
그 어찌 말을 할까 너무 감격해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서
한 알의 밀알 되어 주께 영광을!

획이다.

그리고 일단 집필된 원고는 최소한 2년 이상 실제로 가르쳐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고 보완하여 정식으로 출판토록 할 계획이다.

(4) 성경공부활성화 방안

평신도 성경공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구역역을 통한 성경공부가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구역교재와 함께 구역교사에 대한 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구역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경연구원에서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구역교사중 핵심원이 될 사람들을 약간명이라도 선발하여 새해에는 집중 훈련을 하되 일대일의 훈련을 실시하고자 계획중이다.

이와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또 다른 방향은 먼저 교회의 중진 제직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며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양육토록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진 제직들이 먼저 영적으로 새로운 각성과 함께 힘을 얻고 또한 계속 성장함으로 교회부흥과 성장에 기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어도 총현교회 제직으로서 봉사하려면 먼저 성경공부와 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직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며, 제직 후보의 선정이나 각 기관의 임원선정에 있어 성경공부와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줌으로 제직으로 봉사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새해부터 교인들의 교적카드와 심방카드에 성경연구원 수료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두기로 하였다.

2. 정규사업

(1) 교회단기수련회

해년마다 연초에 실시하는 교회 단기수련회 점차 전교인의 성경공부와 교육·훈련이 확대되고 연중 계속하여 실시됨에 따라 그 목표를 『교회의 영적각성과 심령부흥 및 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에 두어 실시할 계획이다.

(2) 전교인성경공부

매년 1학기(3월~6월)와 2학기(9월~12월)로 나누어 전교인이 성경공부에 참여토록 하는데 특히 앞으

로의 방향은 순수한 평신도 성경공부와 제직들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대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전교인이 성경교사가 되어 가정과 직장에서는 전도인이 되고 교회에서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인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평신도 성경공부를 집단강의식 보다는 점차 단계별·계층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즉 단계별이라 함은 기초과정·육성과정·지도자과정으로 구분함을 말하고 계층별이라 함은 교회내에서 서로 비슷한 책임을 맡았거나 서로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끼리 반을 만들어 성경공부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급규모도 몇백명의 대단위보다는 30~50명 정도로 소그룹화하여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성경공부가 되게할 계획이다.

이같은 평신도 성경공부와 병행하여 모든 제직으로 하여금 능력있고 충성하는 지도자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연초에 실시하던 전교인 단기수련회를 좀더 발전시켜 전문성을 띄워 제직들이 각 직분별로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하되 점차 상설 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는 교육위원회, 전도위원회, 심방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평신도 성경공부와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확보문제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교역자성경연구모임이 주1회씩 모이고 있으며 그룹성경공부인도를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올해에도 이같은 실제적인 훈련과 함께 교재 집필자로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재집필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첨가할 계획이다.

전교인성경공부실시에 있어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1973년 성경연구원 개원 이래 1982년 2학기까지 본 성경연구원을 수료한 2,700여명에 대한 기록을 모두 정리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새해부터는 이 학적번호에 대한 개인별 교육·훈련관계를 일괄 정리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 카세트테이프 성경통신강좌

현재 소수이기는 하나 카세트테이프를 통한 성경

통신강좌의 수강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아 일단은 이 사업을 확장해도 좋을 것이라는 것이 지난 한학 기실시결과와 결론이다.

수시로 입학할 수 있고 또한 수시로 수료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수강생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원하는 강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우편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카세트테이프통신강좌의 좋은 점이다.

새해에는 계속적이고도 집중적인 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보급에 있어 교회내 뿐만이 아니라 농어촌 및 벽지도서지방과 해외성도들을 위하여 전도위원회와 협력하여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4) 지도자양성부

지난해부터 학점취득수표제도와 각 과목에 대한 필독도서선정에 따른 보고서제출 및 주교현장실습등으로 교육을 강화한 바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새해에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소수정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주교교사전문육성기관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새해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주일학교 정교사도 임명받기 전의 사전교육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명을 받은 후에 현직교사로서 계속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는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5) 문서성경통신강좌

현재 성경을 단순히 통독시키기 위한 내용을 초급·중급·고급등 몇 단계로 나누어 발전시킬 계획이며 앞으로 성경통신강좌 교재를 발행할 계획이다.

(6) 기타훈련

안수집사후보의 교육과 피택장로교육은 그 중요성

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계획, 강사선정은 물론 이론과 함께 실제적인 경건생활의 훈련의 기회가 되도록함으로써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로서의 인격과 실력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교육이 되도록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경적교회관의 확립과 봉사자로서의 섬기는자의 자세를 익히도록하며 지도자로서의 숭선수범하며 생활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

맺음말

이상으로 충현성경연구원의 새해사업계획의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다. 이 계획들은 또한 다분히 장기계획의 성격도 있음을 말하고 싶다.

충현성경연구원은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과 질적인 급성장외 길은 성경연구와 신앙훈련이 그 첫걸음이며 기초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일꾼양성·민족복음화·북한선교·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한국초대교회 때와 같은 성경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결심이 선행되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참고

1983년 성경연구원주요사업일정계획

1. 교회단기수련회 : 1월 4일~14일
2. 전교인성경공부 : 1학기-3월 7일~6월 25일(16주)
2학기-9월 5일~12월 17일(15주)
3. 카세트테이프성경통신강좌 : 수시입학, 수시수료
4. 지도자양성부 : 3월 6일~12월 11일
5. 성경통신강좌 : 매월 첫주 발행
6. 안수집사후보교육 : 1월 17일~4월 30일(15주)
7. 피택장로교육 : 6월 1일~9월 30일(18주)

□ 신년특집

83년도는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조 준 상 목사
(북한선교전도특공대 지도)

하나님의 명령이신 북한선교가 차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때에 전도특공대도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2년도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83년도에 더욱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1. 영적 부흥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부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일을 등한히 하는 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성취할 수 없고 설령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 1) 성경공부를 강화하고(매주월요일 성경공부)
- 2) 기도를 더욱 강화하며(철야기도, 대별기도원 철야기도 강화)
- 3) 찬양훈련을 강화하며(집사회 마다 뜨겁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30분이상 부름)
- 4) 전도훈련을 강화하고(차량전도 부활시켜 전대원 차량전도 실시)
- 5) 집회를 강화하여(기도원 혹은 정선훈련원에서 연7회 실시)

영적 부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2. 조직을 강화·확대시키겠습니다

이미 김창인 목사님으로부터 10만명 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신줄 알고 83년도에는 본부 및 각 대대를, 유능한 인물을 발견·훈련하여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한 전국 지부를 활성화

조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3천명을 목표로 하여 대원을 조직 확대 시키며 강원도 정선훈련원도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북한선교 전도특공대원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3.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장려 주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형 차량(봉고 12인승)을 구입하여 「차량전도」를 실시하며 각종 행사를 각대별 혹은 전체로 주관하여, 땅굴 답사, 관문점 방문, 친목회, 체육회 등을 갖고, 진방부대 방문과 불우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중창단을 여러 그룹별로 조직하여 차량전도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손과 발이 될 임원수련회와 임원친목단합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대로 가능한 한, 자주 열어서 정예된 요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새가지를 기둥으로 삼고 시시때때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앞장서신 김창인 목사님의 분부를 받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나간다면 그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계속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일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진진할 것과, 많은 일꾼, 좋은 일꾼, 성실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필요한 재정 1억원을 주십사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기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 하시면 들고, 내리라 하시면 내리면서 생명 걸고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아멘! 주여 앞서 가시옵소서!

주의 능한 기적을 보이옵소서!

□ 독자시

동역자

장혜연

(초등부교사)

그 분이 닭아 두신 터위에,
조심스레 우리 집을 지으려네.

먼저 그분 앞에 골방을 꾸며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고
찰랑이는 기도를 채우고 싶어라.

당신은 심고, 나는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그분임을 믿는 까닭에
남쪽으로 할렐루야
창을 내려네.

아득히 멀리 뵈던 십자가 위에
우리점을 미련없이 걸어버린날
그분은,
장미빛 십자가 우리에게 지우며
일어서라 그리고 걸으라.

둘이 하나 보다 나음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수 있음이요.
둘이면 능히 당할수 있으므로
우리는, 장미빛 십자가 나누어진 동역자.

그분이 닭아 두신 터위를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겠네.

동기 선교훈련에 적극 참여합시다

—새해 아침 총재의 인사—

총재 김 창 인 목사

(총현세계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1983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 해외복음 선교회를 설립한지도 금년으로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외복음선교회를 설립하고 끝이여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선교사를 파송할 당시만 해도 우리는 비웃음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세계선교를 시작한 이후 우리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금년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한지 15주년이 되는 기억할만한 해입니다. 참으로 총현의 세계선교는 새 성전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 전쟁입니다. 선교는 악마와 싸우는 전쟁인데 전쟁이란 우리의 재산, 생명을 총동원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전쟁 특히 선교는 왜 하여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네째,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인을 천국으로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위에 있는 모든 백성을 천국으로 올려주는 일이 선교입니다. 이일을 위해서 우리는 뼈가 아프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전투입니다. 십자가 정병들이 벌이는 전투입니다. 선교에 임할 일꾼들은 선교사로 나갈 사람도 있고 선교인으로 봉사할 분도 있고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며 또는 선교를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저 선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앞으로 1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선교인을 파송하려면 누구든지 늘 이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선교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마지막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 1회로 개최되는 동기선교 훈련에는 목회자만 30명, 헌신자만 620명을 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선교훈련은 2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목회자들과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는 성도들과 선교연구의 능력이 있는 젊은 이들 및 후원의 뜻을 가진 성도들을 1월 17일~20일에 걸쳐 700명 가량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산하 각부 교역자 및 교사와 청년 대학생들이 적극 참가하기 바랍니다. 또 전도위원회 산하 남녀전도회, 직장전도회, 권사회, 세계선교회의 임직원들 및 회원들도 금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방위원회 산하 각 지구의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도 "선교 세미나"에 참여하여 훈련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회 성가부 각 성가대도 집회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원 여러분들은 선교회원으로 서도 이번 훈련에 잘 참여하여 세계선교에 앞장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동기 선교세미나로 선교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첫번째로 갖는 뜻깊은 훈련이므로 총현의 성도들은 열심히 시간 시간 잘 참여하여 세계선교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같이 누리게 되는 십자가 정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3년 1월

선교훈련원안내

1. 선교훈련원 운영목적

1) 본 선교훈련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나갈 선교사의 기본및 최종 훈련을 목표로 한다.

2) 본 선교훈련은 이미 파송되어 현지에서 선교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2. 반편성

- 1) 목회자반(목회자선교사반, 목회자 선교인반)
- 2) 평신도반(평신도 선교사반, 평신도 선교인반)
- 3) 선교헌신자반(선교 연구반, 선교 후원반)

3. 각반자격

1) 목회자반

(1) 목회자 선교사반 : 총현세계선교회 선교사로 선정된 목사 강도사

(1) 목회자 선교인반 : 총현세계 선교회 선교훈련을 원하는 남녀교역자(목사, 강도사, 전도사)

2) 평신도반

(1) 평신도 선교사반 : 총현세계선교회 평신도선교사로 선정된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2) 평신도 선교인반 : 총현교회세계 선교회 훈련을 원하는 평신도(세례교인)로서 해외에 나갈 (이민, 취업, 유학, 기타) 사람

3) 선교헌신자반

(1) 선교연구반 : 1), 2) 항 이외의 자로서 총현세계선교회 훈련을 원하는 선교 연구의 능력이 있는자

(2) 선교후원반 : 총현세계선교회 선교정책을 위하여 기도 및 물질 후원을 원하는 자(세례교인)

4. 등록안내

1) 등록기간 : 목회자, 평신도반 1983년 1월 9일 ~ 16일까지, 일반회원 17일까지

2) 등록장소 : 총현교회 전도위원회실, 본당접수처

3) 등록비 : 장학금으로 면제

4) 교재 : 각반 교재 무료제공

5) 수료식 : 1983년 1월23일(주일)저녁 예배시

선교훈련 세미나 일정표

1983. 1. 17~1. 20

		17일(월)	18일(화)	19일(수)	20일(목)	비고
오전	1교시 10:00-10:50		선교사의 자격 테리파이 선교사	평신도 선교 신학 신성종 목사	총현의 선교 역사 최석주 장로	목회자반 30명
	2교시 11:00-11:50		선교 역사 파이 부인	선교 전략 이중운 목사	총현 선교 전망 김창인 목사	
오후	1교시 2:00-2:50		선교사의 자격 테리파이 선교사	원주민 선교 전략 고광철 선교사	총현평신도선교전망 박용삼 박사	평신도반30명
	2교시 3:00-3:50		평신도 선교사와 유원신관 운영탁 목사	평신도 선교 전략 이성근 목사	총현평신도선교역사 최석주 장로	
저녁	7:00-7:50	특강 : 선교와이데올로기/박용삼박사	1부 예배 사회 : 임광식 장로 기도 : 이옥녀권사 설교 : 장정일목사 축도 : 최봉호목사	1부 예배 사회 : 오치용목사 기도 : 유감순권사 설교 : 이중운목사 축도 : 김창근목사	1부 예배 사회 : 최석주 장로 기도 : 전인화 권사 설교 : 김창인 목사 축도 : 김창인 목사	목회자반 평신도반
	8:30-9:20	사회 : 한경일 장로 기도 : 김봉재 권사 설교 : 신성종 목사 축도 : 김원남 목사 헌신 : 기도회	선교지 보고 제목 : 아세아선교 보고 도문갑O.M.F.총무 헌신기도회	인도 선교지 보고 나니바부 목사 NANIBABU 헌신기도회	총현의 선교 현장 최석주 장로 헌신기도회	선교헌신자반 (연구반 및 후원자반)

기독교의 인생관



안 석 렬 목사

(고등부 지도)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쾌락을 구하겠는고 (셀라)」(시 4:2)

인생관이란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이다. 그러므로 먼저 철학적으로라도 정의를 하면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 곧 인생에 관한 전체의 진리를 보아서 아는 일을 인생관이라고 한다.

우리는 누구나 생 속에 있다. 아니 생자체이다. 그러면 생의 본질이 무엇이며 생의 의의와 가치는 무엇이며 생의 목적은 무엇이나? 어디로 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직 하나 밖에 없고 또 오직 한번 밖에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생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속에 사망을 품고 있는 생, 죽을 수 밖에 없는 생이거니와 생은 과연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죽음 저편에는 다시 생이 있는가? 이런 문제는 누구나 일생에 한번은 생각해 보는 인생의 근본문제다.

저마다 저답게 자기 생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가지고 생활과 처지와 경험에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 이와 같이 생에 대한 어떤 평가와 해석을 가리켜서 보통 인생관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인생관이 옳고 어떤 인생관은 옳지 않은가? 우

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가? 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에 까지 도달하게 된다.

인생관을 기독교적인 면만 가지고는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자는 반기독교적인 것을 몇가지 열거함으로써 기독교의 인생관을 결론적으로 독자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시대적으로 생의 이념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살펴보자.

1. 생의 개념의 시대적 변천

서양사의 일반적 시대 구분에 따라 고대·중세·근대·현대로 나눌 때, 그 시대별로 생의 이념에 큰 변화가 있다.

A. 고대(희랍)적 생은 관상적 생이다

희랍인들은 4천만에 한번씩 올림피아에서 민족의 제전을 베풀었다. 여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제전을 보고 즐겼는데 그들은 결국 새 종류의 인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 제전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사람과 또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바탕 돈을 벌려고 하는 향락적 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둘째로는 이 경기에 참가해서 승리하여 상을 타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으려는 사회적 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제전의 광경을 조용히 바라다 보고 관조하는 사람으로, 이 경우의 삶을 관상적 생이라 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번째의 생이 바로 신적인 생활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초의 행복의 경지라고 보았다.

B. 중세적 생은 단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적 생이다

이성이나 지식보다 신앙에 우위를 두는 생이다. 중세의 세계관, 중세의 원리는 기독교였다. 또 기독교 사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가지 관계를 가진다. 쉽게 표현하면 by(~에 의해서)와 for(~를 위하여)의 관계다.

하나님께 의하여 인간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재와 활동, 그 자체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것이 중세의 신앙적 생의 이념이다.

C. 근대적 생은 이성에 우위를 두고 있으므로 해서 행동적 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원리는 개인이고 개인은 인격과 자유와 개성을 가진 독립적 자아로서 자기의 풍성한 개성과 능력을 생의 온갖 영역에 걸쳐 자유롭게 발전, 실현시키는 행동의 주체다.

근대적 인간은 무엇보다 자기 자아의 자유로운 실현과 개성의 적극적인 발전에 생의 의의와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관상이나 신앙보다도 행동에 우의를 두었다.

D. 현대적 생의 특징을 한 말로서 표현한다면 향락적 생이라고 할 수 있다

풍성하고 난숙한 문화의 터전 속에서 살고있는 현대인은 저마다 자기 생을 최고도로 향락하는 생활을 원한다. 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현대인의 생활윤리요 인생철학이다. 현대의 기계문명과 자본주의는 현대인 앞에 많은 편리와 한없는 쾌락과 무한한 유열(愉悅)의 세계를 마련해 놓았다. 현대인은 이것을 추구하기와 마음과 몸과 시간이 바쁜 것이다.

II. 그릇된 철학적 주장들

현대철학에서도 현대인들이 철학적인 면에서도 병들었다고 그들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현대인, 고도의 발달한 기계문명에 둘러 자유청신한 생의 감정을 잃어버린 현대의 인간들, 이(利)의 추구에 저마다 팔걸음이 빠른 자본주의 생활방식 속에 지쳐 버린 인간들, 말초신경만 자극시키는 감각주의 문명 속에서 신경이 병들고 색스와 술과 스릴을 찾아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추구하는 인간들, 고도분업사회 속에서 생명없이 바늘한 기계를 상대로 일해야 하

는 직업의 기쁨과 노동의 재미를 상실한 인간들, 거대한 기구와 체계를 가지고 신문·영화·잡지·라디오 등을 통해 매스컴유니케이션이 빚어내는 압도적인 선전과 여론 속에서 설 자리를 잃은 현대인들이 찾아야 하는 인생관이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여기서 현대시대를 조금은 바로 표현하면서도 엉뚱한 처방으로 오히려 자기시대를 더욱더 혼란으로 뒤섞이게 한 철학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바른 인생관이 무엇인가 찾고자 한다.

A. 쇼펜하우어(Schopenhauer)

우리는 쇼펜하우어하면 염세주의(厭世主義)를 생각하게 된다. 염세주의란 인생의 참다운 행복 또는 만족을 얻는 것에 절망하고 또 인생을 변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인생관을 심리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근거에서 입증하려는 학설이다. 염세관이란 말의 뜻은 낙천관의 반대로 세계와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괴로움과 악이 많다고 생각하며 실망하고 싫어하며 거리는 정신적 태도로서 이러한 인생관 때문에 염세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다.

인생관은 세계관과도 직결된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염세적이면 인생을 보는 관점도 염세적이 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이 괴로움에 가득찬 세계에서 즐거움을 한시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필경 맹목적인 생의 의지의 술책에 동락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인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이 고뇌를 해탈하려면 일시적 방법인 예술적 해탈과, 완전한 방법인 윤리적 해탈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윤리적 해탈을 하려면 세계가 악하고 헛된 것, 인간의 일체의 욕망의 추구가 다 부질없음을 느껴야 하며 뿐만아니라 최종의 도피 방법은 자살이라고 주장하였다. 쇼펜하우어는 생을 부정한 철학자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자신의 주장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콜레라를 피해 도피했고 개를 끌고 식당에 가서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개에게 먹게하고 식사를 했으며 동시에 공포와 악마적 환상에 빠져 이발사의 면도를 걸고 그 목에 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B. 니체(Nietzsche)

사실 현대의 생의 철학은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니체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철학에서는 니체를, 가장 생을 문제시하고 생을 긍정하고 생을 철학한 사상가라고 칭한다.

생에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생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생을 끝까지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니체는 생을 사랑한 나머지 운명애(運命愛)의 사상을 고창하였다.

운명이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가지고 인간의 존재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 또는 어떤 결정을 의미한다. 운명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인데 이 운명에 대해 우리 인간은 두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운명에 반역하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운명을 깊이 들여다 보고 이것이 자기 운명인 것을 인식한다면 그 운명을 자기의 것으로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이 수 있는 것인데 니체는 후자인 운명애의 사상을 주장한다.

이 니체의 사상은 얼핏보면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듯 하지만 사실 니체는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 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상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니체의 철학은 보통 초인(超人)의 철학, 또는 권력의지의 철학이라고 한다. 그는 권력의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치평가의 원리에 서서 소크라테스(Socrates)와 그리스도

를 비난하였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동정과 연민의 노에도덕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생명을 죽었다는 것이다. 그 후 인간은 비소(卑小)해지고 비굴해져서 니체는 인간의 존재를 그를 초월한 신(神)적인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함께 속하고 있는 생물적 세계, 즉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규정한 것이다.

그는 그의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신은 죽었다고 외쳤다. 그에게 있어서 신의 죽음은 자연적 세계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니체의 철학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허무주의(虛無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유고(遺稿) 「권력에의 의지」라는 책에서 허무주의란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니체가 여기서 최고의 가치라고 한 것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도덕을 의미

한다. 기독교의 종교적 세계관과 도덕이 무너지면서 허무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신은 죽었다. 이제 새로운 신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초인(超人)이라고 주장한다.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해석과 비판이 아주 병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니체의 유혹의 손길에 매혹되어 허무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요 속에서 목표없는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C. 휴우머니즘(Humanism)

“휴우머니즘이 무엇이나?”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면 인간존중, 인간회복, 인간해방의 사상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성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상과 제도와 세력으로 부터 인간과 인간성을 해방하려는 정신이 곧 휴우머니즘 태도이다. 여기서 인간성이란 곧 인

간이 인간다운 것, 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 현대 인간들은 불행하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사랑의 철학이요 서로 사랑하는 윤리이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적 휴우머니즘은 오늘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20세기의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사상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수 없다. 실제로 휴우머니즘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인간이 만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이 창조해낸 십자가를 지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랑에 빠져 외인인양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각종전자제품도매

• 취급품명

1.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비디오, 녹음기, 밥솥, 밥통, 까스렌지, 믹서, 커피포트, 에어포트, 다리미 등 가전제품 일절.
2. 비디오 촬영·녹화(결혼, 회갑연, 관광, 각종 행사 출사)

• 본 점포의 특징

1. 본 점포는 철저한 아프라씨비스가 보장되는 일류 메이커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2. 본 점포는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신 물건을 대리점이나 타 전자센터에 가격을 알아 보시고 본 점포에 다시 가격을 알아보시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화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 합 상 사

261-1188·266-9226

대표 오 정 현 장로
오 정 수 집사

D. 까뮈(Camus)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젊은 청년층의 우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는 전쟁후에 부조리(不條理)를 주장하면서 획기적 작품을 내놓았다.

그의 책「시지프스의 신화」의 해설을 보면 그는 전쟁후 세계의 분위기를 부조리와 자살이라는 말로 훌륭하게 요약하였다.

산꼭대기로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 고된 작업을 하는 「시지프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책이야말로 고민하는 우리들 현대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혜를 주고 신도 예언자도 없는 20세기 후반기에 지표 없이 헤매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놓았다고 극찬(?)하고 있다.

신에게 형벌로서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려놓도록 명령받은 그는 바위를 고생을 하여 올려놓지만 바위는 바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수백 수천번이라도 계속하여야 하는 그 일을 통해 헛수고하는 시지프스의 삶을 인생으로 표현하면서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 그러나 힘이 없어 죽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 하고 싶은 말들을 참아가면서 신은 우리에게 아무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우리의 고통을 보며 즐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까뮈는 그의 다른 책 「이방인」에서는 무감각하면서도 인간적인(?) 밀쓰오를 등장시켜 부조리의 세계를 만든 신을 저주하며 인간적인(?) 감동을 자아내며 그 삶이 마치 부조리를 만들어낸 신에 대한 도전과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까뮈는 신(神)이 만들어낸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냥 시지프스같이, 밀쓰오같이 묵묵하게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데, 그의 책을 읽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로서 그의 주장에 강요당한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하는 것이 사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관을 가르쳐 주던 중세의 사상이 인간화되면서, 개인화되면서, 현대화되면서 변화되었다. 인간은 인간성을 찾기위해 자연도 버렸을뿐 아니라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의 의의와 가치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소요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다”(고전 10:31, 롬 11:36, 시 73:24~

26, 요 17:22~24)라고 가르친다.

앞에 열거한 사상들처럼 부정적 인생관 속에서 자살을 하는 것이, 반대로 생을 긍정하는 인생관 속에서 신을 죽이는(?) 것이, 또 인본주의를 주장하며 자연과 신으로 부터 인간을 분리시키고 살도록 하는 인생관이, 부조리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신을 무시하는 인생관 속에서 우리를 과연 어떠한 인간으로 만드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단편적인 주장이 조금 긍정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인생관을 취하여 신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관을 세부적으로 정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생의 목적과, 의의 가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그 삶 속에서 그를 즐거워하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관을 정립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 신간안내

조엘 메레디드 지음 · 김정훈 옮김

성경의 제 목별 연구

보이스사 발행 · 446페이지 · 6,000원

저자 조엘 메레디드는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동시에 독실한 성경 연구가로 그가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구약성경을 16번, 신약성경을 34번 통독한 가운데 영감을 입어 이 책을 출판해 내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다른 성경 연구서들과는 달리 그동안 저자의 성경 연구를 토대로 성경 전체를 컴퓨터에 넣어 제목별로 뽑아내었다. 알기 쉽게 또 틀러지거나 누락없이 성경의 모든 제목 리스트들이다 수록되었다.

성경에 나온 계명들, 약속들(452 개에 달함), 신약성경의 교훈들, 초자연

적인 사건들, 권능, 성경에 인용된 책들, 나온 인물들, 성(性), 특성들, 사랑, 은사들, 죄, 거짓말, 기적들, 수(數), 동물들과 식물들, 이름들, 성경의 보물들, 배들과 부양제, 기타 이 책 한편으로 성경에 나온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게 했다.

재래의 다른 성경 연구서들과는 달리 이 책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했다는데 다른 점이 있다.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나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창인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④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3) 패역을 더한 결과는 무엇인가

(1) 한시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온마음은 피곤하여 젖으며”

피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뜻은 한 시간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병들었으니 온 백성은 피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도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2) 전신에 성한 곳이 없어 되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이 발바닥이라는 말은 낮은 사람들을 말하고 머리라는 말은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백성이나 지도자나 똑같이 성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어늘 그것을 찌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1:6)

“그것을 찌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찌어서 고름이 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름을 짜야 할텐데 짜낼 마음이 없습니다. 싸매줄 마음도 없습니다. 약을 발라줄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패한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심해져서 어느 부분이나 주사마져 놓을 틈이 없이 됩니다. 정수리 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있어야 주사를 놓겠는데 다 썩었으니 주사를 놓을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로 나이 많은 분까지, 지도자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폭폭 썩었으니 이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민족적으로 희망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3) 때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뭇종이를 드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젠 안되겠다”

끝나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병이 하도 심해졌으니 낫장을 낼 수 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썩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몽땅 썩으면 기둥으로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장을 올려놓고 그알에 들어가서 한밤 자고 가려했다가 그날밤에 비가 오면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어, 썩은 나무 기둥이 흔들려 기둥이 부러지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찢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둥감으로 세워놨더니, 썩어서 부러질 것을 모르고 잘못 세워놨다가 그 밑에 들어갔던 식구들, 어린이

이들이 몽땅 찢려 죽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부패한 모습입니다. 이만큼 부패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더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여러번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한번 죄악을 범했을때, 하나님께서 당장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열면, 스무번 주었는데도 회개할 기회에 못된 짓을 더하고 그것을 더욱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뭇종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으리만치 되어서 “결과적으로 재앙을 한나개 뻤구나”하는 말씀입니다.

2. 그러면 어떤 매(재앙)를 맞습니까

세가지로 재앙이 옵니다.

1) 첫째는 흉년이 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이 말씀은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더욱 많이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백성에게 흉년을 주시고 또 풍년을 주시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서운 흉년을 주십니다. 흉년이 오면 5가지로 흉년이 듭니다.

① 어떤 때는 흉수가 나서 흉년이 옵니다.

② 또는 반대로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옵니다.

③ 어떤 때는 부서운 태풍이 불어서 흉년이 옵니다.

④ 어떤 때는 황충이 먹고 버려지가 뜰어서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흉년이 있는데,

⑤ 전쟁이 나서 흉년이 옵니다. 제일 무서운 흉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싸울 때, "여기는 밭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안들어가고, 폭탄이 여기는 논이니까 떨어지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그저 천가마, 만가마가 몇시간, 며칠동안에 다 없어집니다.

전쟁흉년은, 군인들이 먹기 위하여 쌓아놓은 곡식창고에 폭격을 가해 못먹게 합니다. 또한 원수들이 먹으려고 쌓아놓은 곡식에다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쌀을 실은 기차나 배를 폭격하여 먹지못하게 해버립니다. 전쟁흉년처럼 무서운 흉년이 없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무서운 흉년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당합니다.

2) 도시가 저주를 당한다.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땅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원두밭의 상적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7~8)

도시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읍니다. 도시! 여기 시온 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한 시온을 말할 때 "딸 시온"이라고 했읍니다. 예루살렘을 딸 시온이라 부른 이유는 크게 두가지 숨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가장 사랑하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지만 키울 때에는 딸에게 더 사랑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딸 시온"이라는 말썬은 가장 화려했다는 뜻입니다. 즉 화려하게 단장한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예루살렘—성전의 바람벽을 금으로 장식했으니 다른 것을 더 예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 궁궐, 모든 장관들이 살던 집, 모든

부자들이 살던 집, 말할 수 없이 화려한 것이 마치 시집가게 된 딸이 차려 입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딸같이 사랑을 받던 화려한 예루살렘이 무엇처럼 되었읍니까? 본문에 보면 포도원의 망대 같이, 원두밭의 상적막 같이 되었다고 했읍니다. 여러분, 시골을 지나다 보면 포도원에 막을 친 것이 있읍니다. 도적이 들어와서 포도를 따갈까보아 그랬읍니다. 그 막이 화려합니까 아니면 거적대기를 갖다 쳐놓았읍니까?

포도원의 망대나 참외밭에 있는 상적막이, 시집가는 딸이 아름답게 꾸민 것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읍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니까 그토록 화려하고 사랑받던 그곳이 원두밭의 상적막처럼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으리만치 초라해졌읍니다.

또 원두밭의 상적막이란 말은 첫째로 초라해 졌다는 말이고 둘째는 위태로와 졌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이 비천해졌고 이제는 위태로와졌읍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만 하지 못합니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삼 수삼 벌꿀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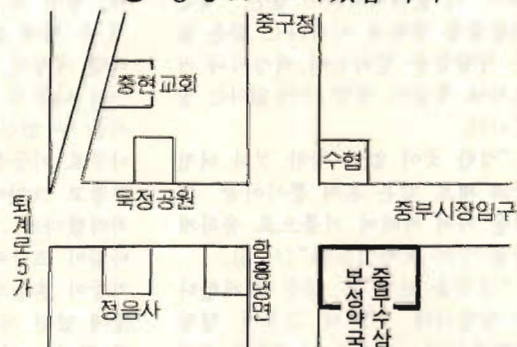
◎ 취급품명

- 고려인삼 • 수삼 • 홍삼제품일절
- 벌꿀 • 로얄제리 • 화분(꽃가루)
- 쌍화차 • 각종인삼차 • 각종자연식품

중부수삼센터 보성약국

전화 273-5397·267-9819

◎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이갑재 집사
한숙원 집사

효과적인 심방 ②

— 심방에 대한 성경적인 小考 —



조 영 길 목사

(심방부 1 지구 담당)

1. 심방이란 말에 대한 이해

지난 호에 심방이란 개념에 대하여 친구약 성경에 나타난 용어 중에서 네가지를 먼저 소개한 바있다.

- 즉 1. 심방하다(갈 1:8)
2. 찾다 혹은 찾는다(눅 15: 4-5, 19: 10, 겔 34: 11-12)
3. 방문하다(행 15: 36)
4. 권고하다(벧전 2: 12 욥 10: 12 창 21: 1 출 3: 16 등)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마저 소개 하려고 한다.

5. 권념(眷念)하다

돌아볼권, 생각념 자를 썼다. 양떼를 일일이 잘 돌아보면서 그 양에 대하여 생각 한다는 뜻이다. 심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양을 돌아보고 그 양에 대한 일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라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 하셨더라”(출 2: 24-25)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 하시라 바람으로 땅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창 8: 1)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권념이란 말씨는 야다(yada)란 말씨와(출 2: 25) 자칼(zakar)이란 말씨이다(창 8: 1).

야다란 말씨의 뜻은

- ① 알다(to know)
- ② 정통하게 알다(be acquainted with)이고 자칼 의 뜻은
- ① 기억하다(to remember)
- ② 생각해내다(to recollect)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떠난 백성들의 상황을 정통하게 아시고, 홍수 심판 중에서도 노아와 그 여덟 식구들을 생각하시고 (심방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다. 오늘의 목회자들의 교인 심방도 바로 이것이다.

양떼들의 영적인 상태를 (육신적인 상태도 못본채해서는 아니된다) 알되 정통하게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양떼들의 행편을 정확하게 아는 길은 일주일에 한두번 교회에서 만나 손 한번 잡고 목례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들의 가정을 찾아 조용히 심방하고 대화를 통하여 진단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돌아와서도 그들을 잊어 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완전 치유될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현대 교회 목회자들이여 양떼들을 권념(yada, zakar) 하는 심방을 합시다!

6. 권고(勸告)하다

권할권, 고할고 자를 썼다. 그래서 심방이란 권고하고(양떼에게) 고

하는 것이라(하나님께)고 본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마 18: 15)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멸망은 지혜롭게 되리라”(잠 19: 20)고 하였다. 여기서 권고라고 한 말씨는 엘랑코(elengko, 마 18: 15)로서 그 뜻은,

- ① 시험하여 보다(to put proot, to test)
- ② 증명하다. 선언하다(to convict)이다. 그리고 야아츠(yaats, 잠 19: 20)의 뜻은

① 상담하다. 조언하다 (to counsel)

② 충고하다. 지도하다 (to advice, to direct)는 뜻이다. 그러므로 심방이란 양떼들의 신령적 생활을 말씀으로 테스트하여 파악하고 상담, 충고, 조언하여 바른 믿음으로 잡아주며 말씀으로 잘 지도하여 주는 것이다. 심방자는 훌륭한 카운셀러(상담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양떼들의 문제 제시를 잘 듣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말씀과 믿음과 자혜로서 충고하며 조언하고, 위로하며 축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문제 해결, 내지는 치유해 주어야 한다.

7. 권면(勸勉), 혹은 권(勸)하다.

권할권, 힘쓸면 이다. 권하는 일을 힘쓰는 것과 힘을 써서 권하는 것과 혹은 권하여 힘쓰도록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사실 심방이란 '권' 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믿음생활을 잘 하도록 권하여 열심으로 교회 출석케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게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토록 하는데 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 하니”(행 11:23)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의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하고”(행 15:32, 20:1, 14:22)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살전 5:11, 14, 롬 12:1, 롬 15:30 등 참고)라고 하였다.

그렇다. 심방이란 양떼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란이나 고난 속에서도 굳은 마음으로(굳센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한 담대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하는 것이다.

권면하는 일을 힘쓰므로 한 마리의 양이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낙심하여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심방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잘 권하여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령한 인격이 도달하고(엡 4:13) 결국 열매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심방의 목적이요 그 내용이요 방법이겠다.(요 15:8)

여기에서 권면하다, 권하다는 말쑤는 파라카레오(parakaleo)란 말쑤이다. 그 뜻은: ① ‘결에, 옆에, 가까이’라는 전치사 파라(para)와 ‘부른다’는 동사 카레오(kareo)란 말의 합성이다. 그래서 본래의 문자적인 뜻은 가까이 찾아가서 양떼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로하고 그 결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로하고 붙잡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 얼마나 귀한 심방인가? 심방의 중요성은 세상이 바뀌어도, 세대가 변하여도 심방의 중요성을 격하할 수는 없으리라!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같은 권면한다’는 말쑤, 파라카레오(parakaleo)란 말쑤는 본래 보혜사 성령님(保惠師聖靈)을 가르치는 어근에서 왔다는 점이다. 보혜사를 가리켜 파라크레토스(parakletos)라고 한다. 사실이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님의 기본적인 역사이다.(요 14:16-18, 마 5:4)

이같은 말쑤는 결국 목회자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그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양떼들을 사랑하시어 보혜사 곧 파라카레오로 역사하여 주심을 뜻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다음의 말쑤이 뒷받침하여 주고있다. 고후 5:20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파라카레오 하시는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라고 하였다.

심방은 하나님의 시키는 거룩한 사역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다. 오! 거룩하고 중요한 심방이여! 그 누가 현대 교회의 심방을 필요치 않다고 말할 자가 있으리요?

구약에 나타난 권면 혹은 권한다는 말쑤를 찾아 보려고 한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필역하되”(스 6:14)

이 말쑤를 보라! 학개와 스가랴가 얼마나 그 백성들을 잘 권면(심방)하였는지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대역사가 필역하게 되었던 것이다.

선지자 학개와 제사장 스가랴는 백성들을 잘 권면하여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도록 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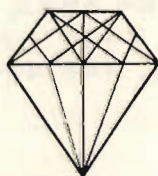
여기에 나타난 “권면”이란 말쑤는 내부아(Nebuah)란 말로서, 그 뜻은:

- ① 알리다. 전하다(to announce)
- ② 예언하다 (to prophesy)
- ③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가

창업 50년의 신용과 전통!

남 문 당 金正泰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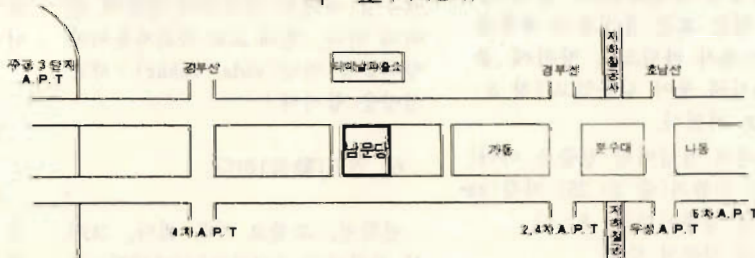
약 도 (지하상가)



금은시계

터미널 강남지하상가

599-3776



르치다 (also generally to teach the Divine will)는 의미이다. 그렇다, 권면하여도 인간적인 말이나 수단이나 뜻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리면서 권면하여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도록 권면(심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심방의 효과요, 성공인 것이다. 그리고 권면을 잘 듣지 않음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도 찾아 보자.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Frovocation, 분통이 터지게 하고, 분개 하게함)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케 하시매 저희가 환란을 당하여...”(느 9:26-27)

뜻은,

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다, 되풀이 하여 말하다 (to say again and again)

② 증언하다 (to testify)

③ 간곡히 타이르다 (to exhort)는 뜻이다.

이 얼마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심방(권면)이며, 간절성이 내포된 권면인가? 사실 그렇다 심방은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되고 흔들리는 양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과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간곡히 타이르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여 결국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8. 권유(勸誘)하다

다. 그러므로 유능한 심방자는 능력있는 설복자와 권유자인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권유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권유를 받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며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렘 20:7)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권유하다는 말씀은 야콜(yakol)인데 그 뜻은:

① 할수있다, 하도록하다 (to be able to)

② 가능케하다 (to be permitted,



이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저들의 죄값으로 70년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여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제2차 귀환시의 후발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총독으로 힘을 다하여 백성들을 권면하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느헤미야는 지금 과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선지자들)의 권면(심방)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멸망한 역사적인 사실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하여 국가의 중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권면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멸망 밖에는 더 있겠는가? 여기에서 말씀한 “권면”이란 말씀을 우드(yud)란 말인데 그

권할권, 꾀일유이다. 그러므로 권유를 잘하는 사람이 심방을 잘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에베소 뿐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행 19:26) 여기에서 권유한다는 말씀은, 페이도(peitho)란 것으로 그뜻은:

① 설복시키다, 권하여...시키다 (to persuade)

② 납득시키다, 납득하도록하다 (seek to persuade)는 의미이다.

그렇다 심방이란, 예수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이들을 대하여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그 내적인 조명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을 설복시키고 납득하여 믿게 하는 것이

to may)이다.

심방이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양떼들로 하여금 잘 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능케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며 불가능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가능의 사람과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심방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사고를 소유한 자라야만 한다. (막 9:23, 열 3:20)

이상으로 심방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는 그만치 살펴보고 다음에는 심방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계속)

□ 찬송가 감상



구주 예수 의지함이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253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좁소서

이 찬송은 우리 총현교회의 1983년 주례찬송으로 정해졌다. 올해에도 이 찬송을 힘껏 부르면서 승리하는 총현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흔히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역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어려운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하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본 찬송의 작시자 스테드 여사(Louisa M. R. Stead)는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과 위안을 주셨다고 말했다.

어느날 스테드 여사의 가족(배외와 딸)이 일광욕을 즐기려고 롱·아일랜드 해협(Long Island Sound)에 갔을 때였다. 날씨는 쾌청하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

보며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 살려요"라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한 소년이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스테드씨는 급히 바다에 뛰어들어 그 소년에게로 헤엄쳐 갔는데 그 소년이 구하려 들어온 스테드씨에게 너무 강하게 매달리며 잡아당기는 바람에 둘 다 익사하고 말았다.

스테드여사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비참한 광경이었다. 스테드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비통한 가슴을 움켜쥐고 주님께 무릎 꿇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스테드 여사가 1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안타깝게 호소하는데 주님은 고요히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들이 무한히 기쁘고 행복하다.

주님께서 곤경에 처한 스테드여사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역경에 처하면 모든 희망을 단념하고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돌아가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순경(順境)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역경에서도 결코 의심치 말라는 스테드여사의 말은 깊은 감명을 준다.

이 찬송은 같은 해인 1910년 찬송가 작시자이며 작곡가인 커크 패트릭(William J. Kirk Patrick) 교수에 의해 곡이 붙여졌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영원무궁토록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생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 믿고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 예수 믿는것은 받은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예수 믿음더욱 좁소서

과거의 받은바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더욱 믿음 좁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마음이 상한 그때를 변민할 기회로 만든다면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타락하기 쉽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의지할때 기쁨이 생기고, 죄악은 벗어지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 금년 한해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김창근 목사

내가 만난 무슬림 여인



나 니 바 부 목사

(Nani Babu, 인도출신·아세아 연신 유학중)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은 타누크(Tanuku)라고 부른다. 그 여인은 조그만 가게를 차리고 있으며 청량음료나 캔디, 달걀 등을 팔고 있다. 그녀는 물건을 팔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는다.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나에게 편지를 띄우게 된 것도 이처럼 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였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녀를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인에게 당신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여인은 내 편지를 받고 나를 초대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내가 Bgm(가명)이란 이름을 가진 이 무슬림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이런 연고로써였다. Bgm여인은 마흔살정도 되었고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남편은 하루 벌여 하루 입에 풀칠하는 노동자였다. 그 여인의 집은 강가 제방 위에 야자 잎으로 지붕을 두르고 서 있었는데 이웃에는 약200가구의 무슬림과 힌두교 신자들이 모여 있었다.

Bgm여인은 다른 이슬람 신자와 힌두교가 여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하루는 내가 그 여인의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여인은 즉시 나를 얼마간 머물려있는 힌두교도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나니바부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슬림 여인 몇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도의 현지 전도인 G·제임스씨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미안합니다. 이런 모임을 우리집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두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무슬림 여인들이 기독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보면, 우리들을 때릴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여인은 모임을 갖기로 한 집주인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 다행히도 그 힌두 여인의 남편은 집에 없었다. 얼마후에 한 무리의 무슬림 여인들이 그 힌두교도의 집으로 왔다.

나는 내가 갖고 다니는 카세트 녹음기로 복음성가 몇 곡을 그들에게 들려주고나서 설교를 했다. 내가 설교를 마치고나자 그들은 나에게 한

사람씩 모두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나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모두 기도해 주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놀랐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말해주기를 부탁했다. 그들은 Bgm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Bgm여인에게 자신의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그녀의 간증을 간추린 것이다.

『나는 돈버는 일을 좋아 했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일(사채놀이)을 시작했었습니다. 대금업을 시작한지 3년쯤 후에 내게 돈을 빌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돈을 갚

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큰 손해를 보고 파산하였읍니다. 이 일 때문에 남편은 나를 미워하게 되었읍니다.

세상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매우 보잘것 없는 여자가 돼버리고 말았읍니다. 내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돈을 갚으라고 나를 못살게 굴었읍니다.

나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느날 밤 아무도 몰래 자살하기로 결심했읍니다. 한밤중에 나는 우리집 뒤에 있는 강에다 몸을 던졌읍니다.

그런데 얼마후 눈을 떠보니 나는 낚선 침대에 눕혀져 있는 것이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 지나가다가 나를 강에서 건져내어 살린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읍니다.

내가 건짐을 받은 다음날 나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었읍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읍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죄 많은 삶과 불안으로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설교 듣기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쳐줄 사람을 찾아 보았읍니다. 얼마후 한 설교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읍니다. 나는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신(나니바부 목사)에게 편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모두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임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간증을 들은 뒤 나에게 목사님 앞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우리들을 찾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지전도인 다이바 바라 쿠마리 여인.

우리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25명 이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선 신앙성경을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1980년 4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치용목사 역)

□ 해외 선교 자료

중공 선교의 최근 소식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교회 소식

중공은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따라 소수민족단 거주지역은 자치지역으로 설정하여 중공내에 5자치구(성·省), 29자치주, 72자치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있는 「연변」 지역(옛 「간도」지방)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고, 백두산 밑에는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있다.

「연변」주 안에는 「연길」시 등 2시6현이 있는데 그가운데 「연길」과 「도문」에는 정부의 허락을 받은 공인교회가 문을 열었고 그밖의 지역에서도 가정중심의 가정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간도」 지역의 중심지였던 「용정」의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 용정중앙교회(해방전 문재린 목사 담임)~현재 공회당으로,

동산교회(해방전 이권찬 목사 담임)~현재 청교로,

용정감리교회(해방전 이호빈 목사 담임)~현재 군대 막사로 사용되고 있고 용정성결교회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월, 수리를 마치고 예배처소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용정」에 있던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은진학교~군대막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명신학교~화재로 소실되었다.

연변주 안에 있는 크리스찬 동포의 신앙도 무척 뜨거워서 새벽 새시에 새벽기도를 나오는 동포도 있는데, 지도자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주일에는 복음을 절고 지켜야 한다」고 설교하고, 어떤 집사님은 「주일에 일을 해도 좋다」해서 교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이 당황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인들은 아세아·극동방송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방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중공 선교에 대한 관심은 관광여행이 가능한 개방성시인 심양, 하르빈, 상해 등에 집중되었는데, 앞으로는 동포들의 밀집 거주지역인 「연변」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다.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애굽—이준교 선교사

거류민 교포 이석순씨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카이로 대학병원으로 실방, 기도드리고 10월23일에는 카이로 거류민 대표 및 주재상사 연석회의에 참석하였음. 한인교회와 동산토건 현장에배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11월14일에는 성례식(세례 2명, 개종 1명, 유아세례 3명)을 거행하고 11월 정기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을 17일에 가짐. 11월 21일에는 감사절을 지켰음.

카이로 시내 엘 비누피 지역의 맹인 소년원을 방문 위로하고 구제금을 전달하였음. 애굽 복음주의 교회화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마디 미국인교회 체프만목사 위임식에 참석 축하하고 수단 기독교 지도자들과도 연락 계속하고 있음.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평안 및 한인교회, 공사현장 예배인도자들의 계속적인 안정과 발전위하여.

② 애굽교회와 수단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복음이 더욱 폭넓게 전파되고 부흥되도록.

○일본—유병세 선교사

이윤호 권사님과 함께 충현교회 해외 복음선교회와 각 실행위원, 본부 직원 앞으로 예쁜 크리스마스카드를 인사문과 함께 보내오심.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선교사역에서 더욱 형통하심을 위해.

② 본국에 남아있는 자녀의 교육과 장래 위해.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독 베를린 제일장로교회에서 충현성도 권금신씨의 특별찬양이 있는 가운데 부흥집회 인도하여 크게 은혜중 진행함. 추수감사절을 11월 세째주일에 장년53명, 유년14명이 참석하여 어린이 성극과 함께 준비한 각종 케익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를 갖고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

성경공부는 부흥되고 있으나 겐트지역은 차편이 없어 중단됨. 새로운 성경연구 방법을 가지고 12월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심. 11월 2일~4일까지 런던에서 거행된 유럽 교역자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고민에서 연말 전교인 모임을 계획하고 계심. 특별한 청원은 성찬기가 없어 한 세트를 요청하시고 어린이 찬송가도 20권이상, 83년도 달력 250부가 꼭 필요함.

선교의 어려움은 너무나 많고 모든 것을 거의 본교회의 전적인 지원에 의지해야하는 남모르는 고충들이 많은 선교지역입니다.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평안 가운데 언어장벽 뛰어넘는 일속히 성공하시도록.

② 현지선교활동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선교차량이 속히

준비되고 적극적인 후원의 길 넓어지도록.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본국에 오셨다가 종합진단만 받으시고 현지업무와 서만수 선교사님 건강을 염려하시고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신 정소라 사모님께서 문안편지를 보내시고 특별히 한국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계단공과를 부탁해 오심. 인도네시아에서 나오셨다가 귀임하시는 분 편에 보내주십시오 소식을 주심.

(기도 제목)

① 지난 십여년간 영육간의 강건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쇠약한 몸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얻어 현지선교에도 계속 승리하시도록.

② 할렐루야 선교센터의 조속한 건축과 현지선교의 안정과 계속적인 발전 위해.

③ 현지인 선교동역자들의 건강과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④ 한인교회와 주일학교의 부흥과 발전 위해.

○아르헨티나—백성룡 선교사

11월1일에 새아르헨티나 교역자 회장으로 선출되셨으며 11일에는 따님인 은혜양이 약혼함. 새아한국인 학교 이사중 목사님은 전원 사임하신 것과 청년 연합회 주최 배구대회에서 준우승하신 소식과 함께 수도권 밖의 변두리에 있는 마단자교

회(25년 설립된 칠레교회)에 임훈철 전도사를 파송하여 칠레교 신학교 파송 신학생 3명과 공동으로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셨음을 알려오심. 주일 대예배에 어른 30~40명, 어린이 15명 정도 회집하고 있으며 임전도사를 서반아어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면서 원주민선교 겸하게 하실 계획이심. 할렐루야. 12월 중에 실시할 주교교사강습, 새해 첫 주간의 계절학교(여름), 두째주의 종교동부 수양회, 세째주의 청년, 교사, 성가대 수양회에 사용할 교재 일식을 긴급요청함.

○칠레—유재일 선교사

선교사역을 위해 청원하신 모든 자료들을 통해 더욱 선교사역이 풍성할 것을 기대함.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주님의 은혜 영육간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도록.

②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 및 현지인 선교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한인묘지 성묘예배를 인도하시고, 한국학교도 제2회 졸업식을 맞이하여 참석하시고, 청소년을 위한 특별 연합성회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추계 대심방을 실시하심,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학습세례자 30명, 성찬참예자는 195명임, 운동시합에는 나가지만 하면 우승 이시라고, 대서관배 배구대회 우승.

(청원 사항)

① 83년도 공과지 준비.

② 찬송과 성경 계속 공급 대책 요망.

③ 교회 도서실용 종교서적 공급 갈망. 신간 및 고본 다 가함.

○인도—엘리아·겔간 선교사

티베인 기독교인 연합회에 참석하여 미국에서 온 강사 통역을 받고 인도와 티베인 양국 국경에 걸쳐 사는 티베인 사이에서의 복음이 놀

라운 사역 소식들음. 세계 신명회의 무수리에서의 준비회에도 참석하여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의를 듣고 일하는 바쁜 일정을 보냄.

카길에서의 사역은 잘 되어가지만 직물 짠는 힌두 여인이 아버지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되어 새로운 기술자가 필요하게 됨. 직물센타 위하여 기도바람. 도서실과 청년센타도 작은 규모로 시작하려고 하고 회교도들 사이에서의 복음사역도 순조로운데 기도가 특별히 중요함. 또한 빌리·그래함 목사가 주최하는 암스텔담 83대회에 초청받았는데 여비의 약간의 보조가 필요하고 할수 있으면 사모님과 함께 가보고 싶어함.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회전도자 선교사들만을 위한 대회임.

○본부 소식

①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님의 후원과 지지를 받고 현지 원주민선교에 수고하시는 고광철 선교사 부부께서 본부를 방문하고 선교지 소식과 선교 계획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1월23일에는 선교지 보고를 본 교회에서 드리는 계획을 약속하고 가심. 원주민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개별적인 후원자만을 의지하고 2개부족 1300명중 1개부족의 거의 전부, 1개부족도 상당히 진전되어 제3의 선교지를 300킬로 떨어진 부족가운데 내년 2월경 귀국하면 착수할 계획임.

복음의 수용성이 좋아 크게 열매 얻을 수 있는 선교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현지의 김재창 선교사님께서도 위로의 협조의 편지를 보내 오심.

② 본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시무하시는 김주경 선교사가 해외 복음선교회 최석주 장로님 앞으로 현지의 자세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해오심. 1979년 12월 25일 10명이 발기. 은상기 목사님이 의료선교사로서 시무하시다가 1981년 6월 미국으로 떠나신후 김선교사께서 담

임해음. 약 40여명의 한국교포가 있으나 대부분 유학생과 그 가족이며 여러명의 목회자가 유학생으로 와 있음. 유대인 선교는 종교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여 간접적인 선교방법을 써야하며 아랍인 전도도 실시할 수 있음. 한국인 성지순례자들이 많아 언어와 신앙문제를 지도하는 차원의 안내사역도 절실히 요구되고 음식문제로도 고통당하고 있어서 한인선교센타로서 기능도 중요한 지역임.

③ 사우디에 나가게신 안명수 평신도 선교인께서 현지의 소식을 예배시 사용하고 교육하는 음악교재와 함께 자세히 적어 보내주심.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의 정기예배, 교육부 헌신예배 및 성경퀴즈대회, 칠야기도회(성가대 주최),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와 친교활동, 임시제직회를 구성하고 부서기로 임명된일, 모국의 거제도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기로 결정한 일과 귀국하는 집사님 편에 전달하는 일, 전도대 발족을 위한 모임과 계획, 설교테이프 기증되어 대출되고있는 내용등 다양하고 다재로움. 기도제목은 '매주 2~3명씩 오고있는 새신자들의 영적 안정과 성장 및 성경분반공부, 기도회모임, 설교하시는 집사님들과 회사를 위하여'임.

④ 협동선교사로 수고하시다가 사제선교부 요청으로 사면하신 킬 선교사님께서 불광동 수양관의 한국기독교 캠프 협의회에서 새생명 성경캠프 부장으로 안내문과 협조요청소식을 전해오심. 후임 협동선교사님으로 3년전 본교회와 관계를 가지셨던 테리·파이선교사님이 다시 오시기를 결정되었음. 오·엠·에프 한국책임자로 오신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영어성경외에도세계 선교전략과 정책수립에 적극 협력해주시게 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음.

⑤ 총회 선교부에서 총회선교정책 개발 세미나 및 제1회 개교회 선교의 개발과 실제 및 제자훈련에 관한 세미나 개최 통보가 있었음.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히 10: 24, 25)

12월의 새 교우

● 1지구

성남 1구역 정덕희
청량리구역 김경주

연희 2구역 이찬구
충신구역 신모선
물지5·1구역 김은숙
물지6·1구역 임배수

● 2지구

신당 5구역 한연순
돈암구역 임석영
광희 3구역 차광길
상계 1구역 성광재
상계 2구역 이영화
중계 1구역 배준호
중계 2구역 김도일
쌍문 2구역 한종택
수유 1구역 양보배
신당3·1구역 유지춘
미아5·1구역 노남진
길음 3구역 김동열
안암 1,2구역 김민자
종암 1구역 박순례
종암 2구역 이양임
신암2·2구역 김명환
신당4·2구역 최남철
신당5·1구역 노환형
동소문2구역 김남룡
돈암 2구역 김홍수
석관 1구역 이종표

● 4지구

논현 1구역 최대주
당산구역 정한동
당산구역 김영자
경북구역 윤태호
신월 3구역 한기문
양지구역 김영구
목동 2구역 김의식
성산구역 박건병

● 5지구

상도 3구역 문미숙
봉천6,7구역 문분순
안양 2구역 이봉주
진삼구역 문은철
안양 1구역 윤금옥
신림 1구역 정화석
신림 9구역 김호연
팔동2·1구역 최석운
독산구역 권용택
팔동 8구역 이덕내

● 3지구

결혼

- 김동균군(권영자 권사 아들 중등부교사)과 최재은양(새가정부) 11월 25일
- 김승은군(이태원 구역 채태선집사 아들) 11월 27일
- 이찬수군(이봉섭 장로 문봉숙권사 아들) 12월 1일
- 한관수군(청년회원)과 진정숙양(봉천6구역) 12월 2일
- 차승일군(차길조씨 아들) 12월 11일
- 이형우군(조성은 권사 아들)과 이명순양 12월 11일
- 김승업군(채태선 집사 2남) 12월 11일
- 조대섭군과 설명옥양(설관호집사 전해선권사의 딸) 12월 14일
- 김경일군(김예권 이청애집사 아들)과 문정주양 12월 14일
- 황규삼군(엄필성 장로 처남)과 신정희양(중등부교사) 12월 15일

- 허광만군(유치부교사)와 송양원양 12월 16일
- 장효선양(계수의 권사 손녀 박영숙집사 딸) 12월 18일
- 김혜경양(지숙원 권사 딸) 12월 18일
- 이성자양(배정자 권사 딸) 12월 15일
- 신상환군과 김경자양(유년부교사) 12월 21일
- 위성희양(이병곤씨 장녀) 12월 21일
- 이도경군(한금희 집사 아들) 12월 27일
- 김종태군과 김경희양(신장구역 이지영씨 딸) 12월 31일

별세

- 김봉덕집사(쌍림구역) 11월 23일
- 정정현씨(구리구역) 11월 25일
- 장옥주권사(보문구역) 11월 29일
- 임희갑씨(성내구역 임옥만씨 부친) 12월 2일
- 이문봉씨(초월구역) 12월 1일
- 김용화씨(인천 1 구역) 12월 17일
- 김영심씨(목동구역) 12월 18일
- 박순환집사(구리구역) 12월 20일

교회소식



안수집사 55명 피택

강명순 강정선 김기열 김대호 김동삼 김동원 김보일 김영근 김영길 김영생 김영진 김인관 김재균 김정선 김종구 김창옥 김천채 문홍구 박관영 박영식 박용삼 박종남 박철훈 서동석 손경수 손준규 송인홍 송창환 심정우 안종옥 오정수 윤광일 윤성철 이상현 이영세 이 욱 이인상 이조영 이종국 이종석 이종섭 이창호 임무천 임봉남 정운석 정인종 정정주 조인제 차신득 최기홍 최명환(A) 최명환(B) 최무길 한송규 황희만

주일학교 지도 부장단 명단

부 별	지 도	부지도	부 장	부감(남)	(여)
영아부	정 소영		정 광호	김 상규	배 옥인
유치부	정 연희	김 정자	최 상규	김 종구	지 경애
어새부	김 양래	이 진희	서 동석	윤 광일	명 정옥
유년부	김 연이	이 성은	최 성현	이 성원	김 정자
초등부	이 양우	황 정숙	강 은원	오 정수	공 향조
중등부	이 원길	김 성운	박 승준	노 문환	이 희수
고등부	안 석렬	윤 태곤 유희희	윤 인현	황 영일	문 옥순
대학부	허 충옥	김 익경 김 정순	김 광신	신 표근	안 춘진
청년부	김 수성	김 영하 김 영주	하 대선	손 경수	손 명순
장새부	구 명신	정 금숙	송 기홍	이 욱	이 명자
세례부	이 성근	김 장근	박 인세	최 무길	윤 재춘
장년부	김 희보	윤 용규	최 대원	정 운석	이 신일
소망부	조 영길	장 영자	강 모용	김 영생	김 정옥
직청부	박 동실	정 관호 정 유화	오 정현	한 현일	홍 풍작
선교부	유 국남		남 선우	이 상현	안 윤진
새가정부	윤 영탁	오 태용	엄 필성	한 형식	안 인현

전도특공대 동기훈련

북한선교회 전도특공대가 주최하는 제 2차 「북한선교 전도특공대 동기훈련」이 오는 17일 부터 22일 까지 5박6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김창인 목사를 비롯하여 귀순용사인 박명하(여)씨 등이 강사로 나오는 이번 훈련에 많은 기도와 참가를 바란다고 하는데 세례교인으로서, 당회장 추천을 받아야하고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으며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회비는 1만원(교재 3천원, 숙식비 7천원, 단 지방교인은 교재 무료 제공)이며 15일 까지 접수한다 (274-2175).

제19기 지도자 양성부 수료

—51명에 정교사 자격증 수여

강태주 김복동 김지호 김형선 박두형 박문국 박종옥 박창식 이석재 임세규 이호광 전승훈 정충한 최승윤 김수영 김영운 한경수(남17명)
고은주 김명화 김물순 김숙희 김승자 김연옥 김영숙 김정연 최효임

마애경 문새정 백영희 사공정옥 신기옥 신주영 양은경 윤정희 이영숙 어인선 어전모 장순덕 장예순 전미령 조남순 조순남 한숙원 한정은 홍선영 김용숙 김주화 이향숙 천숙영 남영수 오숙영 (여34명)

육군교도소 방문전도

전도위원회는 지난 12월11일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위로와 전도집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 행사에는

전도위원회 위원과 남녀전도회 임원들이 참여하였는데 모든 분들이 갈사와 열정으로 봉사하였다. 그동안 후방에서만 여러가지 위문품으로 지원하던 남녀전도회가 실전에 참가하여 전도하는데 열심을 냈다.

직장전도회로 개칭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먼저 직장전도에 힘을 기울였던 산업전도회가 12월 당회에서 결의에 의하여 직장전도회로 개명되었다. 임원 명단은,

회 장 홍중섭 장로,
부회장 최상규 장로, 민순애 권사
총 무 송기홍 장로, 김재균 집사
서 기 김영상 집사, 황현철 집사
회 계 박영식 집사, 이하영 집사
그외 여러 부차장이 83년도에 수고하게 되었다.

직장전도회는 중현의 성도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과 직장전도에 관심을 가지는 상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인사이동

1. 임 명

유년부 정경희(여) 정교사(누락)
장새부 서일영(남) 정교사(누락)
고등부 문홍구(남) 정교사(복직)
김영환(남) 정교사(신규)
문영화(남) 정교사(신규)

2. 전 임

중등부 기정수(남) 정교사(유년부)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1,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제2차 전도특공대 동기훈련 행사 일정표

시간	월(1.17)	화(1.18)	수(1.19)	목(1.20)	금(1.21.)	토(1.22)
5:00		새벽기도회				취 침
7:00		성경읽기 및 암송				
8:00		구보행군 및 세면				
9:00		아침 식사				
12:00		성경총론(조준상 목사)				폐회예배
13:00	북한동포들 구국기도회					
14:00	접수	복음전도설교훈련			총극대회	
15:00	출발	간식 및 휴식				
16:00	도착	전도훈련				
17:00	오늘날 북한 실정은? 〈이세환〉	전도자 사울 바울 〈허충옥〉	귀순 용사 간증의 시간 〈박명화〉	북한선교에 대 한 성경적근거 〈조영길〉	전도특공대 조직과 운영 〈박상준〉	
18:00	저녁식사					
19:00	찬양으로 주께 영광					
20:00	저녁부흥회〈김창인 목사〉					
21:30	2부기도회				휴식	
22:00	각대별 기도회〈각대장 주관〉					
23:00					철야기도	

각종 통계

1982. 12. 5(매월 첫주 기준)

구분		남	여	계		
예	주일낮	I부	201	348	549	총 세대수
		II부	321	771	1,092	
		III부	308	599	907	
		IV부	185	410	595	
		V부	372	917	1,289	
배	주일저녁	206	462	668	교인총수	남 4,180
	삼일저녁	117	311	428		여 6,112
주	어린이새신자부	12	17	29	신금별교인현황	계 10,292
	영아부	231	185	416		남 2,291
	유치부	146	194	340		여 3,816
	유년부	197	205	402		계 6,107
	초등부	210	217	427		남 636
	중등부	179	172	351		여 527
	고등부	112	140	252		계 1,163
	대학부	64	55	119		남 314
	청년부	67	66	133		여 433
	장년새신자부	36	101	137		계 747
학	세례부	27	50	77	원입교인	남 937
	장년부	33	261	294		여 1,336
	소망부	36	101	137		계 2,273
	직장청소년부	28	71	99		
	신교부	12	58	70		
교	새가정부	29	38	67		
	합계	3,129	5,749	8,883		

1월의 행사

- ◇교 회
1일/신년예배
2일/공동의회
7일/전체철야기도회
20~21일/학습세례문답
21일/세례식
23일/성찬예식
25일/김창인목사 출국
- 24~27일/고등부 계절학교
31~ 3일/어새부 계절학교
/유년부 계절학교
/초등부 계절학교
- ◇심방위원회
2일/제직회
7~ 8일/구역제직훈련
9일/권사회 월례회
11일부터/노인대심방
16일/심방위원회 월례회
23일/구역권찰회의
- ◇전도위원회
9일/남전도회 월례회
/충현세계선교회
/실행위원회 월례회
/여전도회 월례회
13~14일/전도위원 단기훈련
15일/전도위원회 친구위원 총회
17~20일/제1회 선교훈련세미나
23일/전도위원회 월례회
/충현선교회 선교주일
- ◇재정위원회
2·16일/재정위원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30일/건축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16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성경연구원
4~14일/'83년 교회단기수련회
17일/안수집사 후보 교육개강
23~2월20일/주교교사 양성부
제20기 학생 모집
특별회의
- ◇교육위원회
16일/주교실무자 교육
17~20일/중등부 계절학교
24일/교육위원회 월례회 및
특별회의

편집후기

◇1983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 한해동안도 내내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선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대망의 새성전 입당을 앞에 놓고 여러가지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세계를 향해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같은 축복된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윤 명 식
편집위원/
이 성 근 이 세 열
윤 영 탁 안 석 렬
김 영 구 조 현 명
김 차 생 우 기 전
이 훈 정 은 표
오 태 용 이 형 수
장 수

1983년 1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1 월호

제11권 제1호

통권 제106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1월 10일 인쇄

1983년 1월 15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윤 명 식
주 간/김 영 구
편집부장/장 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110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화/274-2171·2172

1983년도 충현교회 당회원



당회장 : 김 창 인

서 기 : 조 현 명

부서기 : 이 태 규

한	명	육	김	한	홀	윤	종	순	김	기	정
운	종	성	임	광	식	최	석	주	황	창	용
박	창	수	이	응	선	윤	용	규	홍	중	섭
한	경	일	정	석	태	최	성	림	김	영	삼
이	원	철	김	은	호	윤	명	식	조	선	근
오	태	희	강	순	용	김	영	개	김	방	진
마	성	락	김	차	생	고	병	옥	신	현	상
우	기	전	김	경	철	손	동	운	노	광	현
이	창	업	김	원	선	오	진	국	박	치	민
정	하	우	이	병	학	박	인	세	서	일	영
하	대	선	안	익	태	윤	인	현	최	대	원
최	상	규	강	모	용	박	승	준	엄	필	성
정	광	호	박	채	용	송	기	홍	강	은	원
오	정	현	최	성	현	이		훈	김	광	신
남	선	우	서	동	석						

충현교회 새성전 조감도
BIRD'S-EYE VIEW OF CHUNGHYEON CHURCH



폐사에 하명해 주십시오
15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사업 중목

- ① 냉난방 및 위생 설비 시공
- ② 기계 기구 설비 시공
- ③ 상하수도 공사
- ④ 소화 설비 공사
- ⑤ 주택 건설 사업

대표이사 金 相 烈 집사
상무이사 李 進 洙 집사
상무이사 李 成 大 집사



南洋設備株式會社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304호
전화 / 266-4465, 2470 ● 269-2260, 2767
● 265-2672 (자택 / 842-4353)